

8가지 탈핵 이야기

김우창¹, 이태욱, 조은혜, 김혜연, 강현욱²

[¹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 박사후연구원, ²원불교환경연대]

1. 들어가며: 왜 우리는 여덟 명의 ‘탈핵’을 잇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나?

태풍, 홍수, 가뭄, 산불, 지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위험이 커지면서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닌 기후재난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2024년 첫날인 1월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7.6의 이어지는 여진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난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발전 시 탄소 배출량’만으로 핵발전은 저탄소 혹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불리며 그런 위상의 대명사가 되었다.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계획(2024~2038년)은 40년 수명을 다하는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과 4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24년 25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버릴 핵폐기장 건설은 아직도 요원한 가운데 매년 75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저장 수조에 쌓여만 가고 있다. 핵발전소를 멈추고 ‘탈핵’을 달성해도 핵폐기물을 10만 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2023년 원전산업 현황보고서’는 핵발전 선진국들도 이미 탈핵, 재생에너지로 방향키를 전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6기 평균 공사 기간은 9.4년이고, 건설부터 전력 생산까지 2023년 4기 기준 16년이 걸린다. 2030년 탄소 배출량 50%를 감축해야 하는 긴급성에도 맞지 않고 안전 강화, 관리 및 사고 비용 증가로 경제성이 떨어져 설계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핵발전 선진국들의 현실이다. 깨끗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탈핵은 기후위기 시대 가장 절박한 과제이지만 탈핵 이야기는 정쟁의 언어와 이념의 틀에 갇혀 일상성과 대중성을 좀처럼 확장해 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무한대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에너지를 무한대로 사용하겠다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가 벌어진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후쿠시마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원불교환경연대 탈핵기록단 ‘탈핵 잇-다’는 일상생활에서 탈핵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 안전한 지구를 향한 그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탈핵이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탈핵기록단 ‘탈핵 잇-다’는 총 여덟 명의 시민을 인터뷰하여 왜, 어떻게 그들이 탈핵을 고민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에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기사를 작성하여 오마이뉴스와 브런치에 매달 업로드하였다. 소박한 자유인 청명, 대한민국 원전기행문을 쓴 신혜정 시인, 기사에 맥락을 담은 장미쁨 기자,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남아진 활동가, 울진 핵발전소 연구로 박사논문을 쓴 황정화 박사, 야외극 탈핵퍼레이드로 탈핵을 이야기하는 나무담움직임연구소 장소익 대표, 나가사키에 간 이후 연대를 배운 전경림 약사, 탈성장과 탈핵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공혜원 씨 등 다양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2. 본론

1) 소박한 자유인 청명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일 것이다. 친구 혹은 동료라는 이름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는 멀어지거나 적어도 예민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애매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내가 그랬다. 핵발전 관련 일을 하는 사촌 형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핵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치 꿈쩍 않는 벽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나는 그들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싸우고 설득시켜 끝끝내 굴복시켜야 할 존재로 바라봤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쩌다 나는 누군가를 왜 그리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어른이 되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동료 시민’을 적으로, ‘다름’을 틀림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좁고 작은 창문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일까, 페이스북에서 웃으며 순례하고, 운동하고, 연대하는 한 사람의 글과 사진에 눈길이 갔다. 청명이었다. 몽블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그를 잘 아는 사람만이 아닌 처음 보는 사람과도 웃으며 그 순간을 즐기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는 어떻게 바쁜 삶 속에서 탈핵 운동을 하고, 다양한 활동과 실천을 지치지 않고 하는지. 어떻게 ‘즐겁지만은 않은 일들을’ 웃으며 할 수 있는 걸까. 그는 어떤 창문으로 이 사회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탈핵이다 시즌2,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청명이다. 4월 23일 청주충북 기후순례를 마친 그와 약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이름은 장미영, 그러나 페이스북 계정은 ‘청명’이라는 활동명으로 만들었다. 순례할 때 다양한 사람을 만나 자기소개를 주고받았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본인’을 설명할 때조차 계급과 권력이 드러났다.

계급적인 발언을 하거나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가령, 교수님이 하는 말에는 모두가 괜찮다고 생각했고, ‘님’이 붙는 직업과 ‘님’이 붙지 않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열, 계급, 권력을 없애기 위해 제일 먼저 활동명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그의 자녀가 다니던 실상사 작은학교는 ‘농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공부 중 하나였다. 학생들은 절기가 적혀 있는 달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의 방에도 그 달력이 걸려 있었다. 그는 예로부터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날인 ‘청명’으로 정했다. 그의 삶과 운동에서 ‘농사’는 그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물론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만들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제가 택한 즐거운 삶인 거죠.

탐욕을 미덕으로 여기게 만드는 자본주의하에서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청명에게 중요한 농사를 먼저 물어보았다. 그는 특이하게도 ‘섞어짓기’라는 이름의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것저것 막 섞어서 농사짓는다는 의미일까? 너무도 낯선 ‘섞어짓기’가 무엇인지 먼저 물었다.

농사도 제 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그 이상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욕망이고 욕심이겠죠. 현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 중 30%를 이 텃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섞어짓기 방법을 사용했죠. 섞어짓기를 통해 30평의 땅도 60-70평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작물들 사이에도 서로 이롭거나 해로운 작물이 있다는 거예요.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작물, 자연 그리고 숲에도 궁합이 있어요.

청명은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 틀이나 경계를 만들지 않고, 조화롭게 작물들이 커가는 환경을 만들었다. 약을 안 치기 위해 토마토를 부추랑 같이 심었다. 허브를 심으면 벌레를 쫓아 주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 중간중간에 심기도 하였다. 서로 도움이 되는 식물들 위주로 심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식물도 다른 곳에 따로 심었다.

안 맞는다고 기피하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심으면 돼요. 그들도 저의 텃밭을 이루는 하나니
까. 사람 사는 것과 똑같아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배제해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섞어짓기란 저에게 ‘섞어서 살아가기’와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말은 쉽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을 만나 기
본적인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이 드는 ‘소통할 수 없는 사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얘기 해도
될까, 저 얘기는 피해야겠지’라고 눈치 보거나, 어떤 주제로 충돌하면 함께 살아가던 동료 시민이
아니라 서로를 이겨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탈핵순례하면서 그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
을까? 탈핵을 외치는 그에게 핵발전소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날이 선 말들을 해 왔
을까? 또한, 그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일주일 중 3일은 최소한의 돈을 벌고 일하는 날이라면, 나머지 4일은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급자족하
는 삶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내요. 농사하고 공부를 하며 순례하는 거죠. 걷는다는 것은 저를 겸손
하게 만들어 줘요. 나를 비워야, 내 안의 많은 것들을 비워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비로
소 생기거든요. 순례는 탈핵을 외치는 것도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 만나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 비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청명에게 순례란 봉사나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며 ‘직업’이었다. 자유롭게 사는 자
유인이 되기 위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비움의 시간이었다. 타인을 오롯이 듣고, 느끼고, 이해하기
위한 일.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비우지 않으면, 내가 가진 많은 것들로 인해 ‘권력’을 휘두를 것이
뻔했다. 타인을 평가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설득시켜야 할 존재로 여기지 않기 위해 ‘순례자’는
그의 직업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그렇게 순례를 하다가 계란을 맞거나 ‘빨갱이’ 소리를 듣기도
했다.

제가 탈핵이 적힌 몸자보나 깃발을 들고 가면, ‘너는 전기 안 쓰냐’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무서웠
죠.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이 아니라, 본인들과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고민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닐
까? 반대로 우리 역시 그분들에게 다가가질 않았잖아요. 탈핵운동하는 우리도 이미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굳이 만나려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저 불편한 사람들로
남는 거죠. 근데 그들을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에게
‘빨갱이’라고 하면 ‘지금 좌우, 빨갱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발전소 폭발하면 다 죽어요’라고 말해요. 그
럼 그분들도 화들짝 놀라세요. 저는 핵발전소 주변 마을과 지도를 보여줘요. 그분들은 그렇게 가까운 도
시에 많은 사람이 사는 줄 몰랐던 거예요. 대전에서 청주도 30km도 안 돼요. 그럼 저를 빨갱이라고 부
르던 분들도 결국 저의 탈핵운동을 응원하세요.

이렇게 순례를 통해 청명은 먼저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본
인 생각을 차분히 전달하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저항할 것인
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권력이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의견 너
머, 기저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주의(ism)’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싸워야 한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은 권력이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잖아
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삶과 거리에서 ‘탈핵’을 외치고 실천하고 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탈핵만이 답이 아니라고 말했

다.

탈핵은 단순히 핵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만을 뜻하진 않아요. 이것을 질적 변화라고 말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현대 사회시스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량 생산과 소비’ 그리고 ‘편리를 취하는 대신 사유하지 않게 만드는 삶’이죠. 즉, ‘양적 변화’에 대한 성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핵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는? 대량으로 사고 만들고 버리는 많은 것들은?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지만, 우리 삶은 바뀌지 않아도 될까요?

그는 에너지원의 변화를 뜻하는 ‘질적 변화’와 함께 우리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양적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청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안적인 삶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안생활운동’과 ‘비움실천운동’을 주변에 나누기도 했다. 비움실천을 통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사고 싶은 욕망과 탐욕을 비우고 실천하며, 자본주의 안에서 ‘자족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움실천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탈핵에 연동되는 ‘대안생활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19년 후쿠시마 8주기 행사에 다녀온 이후 300명에게 80일간 문자를 보냈어요. 주변 지인, 가족, 사회단체, 시민단체, 탈핵단체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 이러한 비움실천을 했다’라면서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냉장고와 세탁기 없는 삶, 계절별로 내복과 옷 두 벌로 살기, 드라이기 없는 삶, 가벼운 옷들은 손빨래하기, 음식물로 퇴비 만들기, 생활쓰레기 줄이기, 과일망 재활용하기, 통과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가급적 불 켜지 않기. 섞어짓기 농법으로 농사짓고 자족적인 삶을 확대해나가기 등 청명은 매일 자신의 일상 속에서 했던 ‘비움실천’을 300명에게 80일간 보냈다. 단체 메시지로 보내면 스팸 메시지처럼 생각할까 봐, 한 명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3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300명 중에서 일부는 저에게 ‘이것저것 해봤다’라고 연락을 주었어요. 그럼 저는 답을 준 사람들의 비움실천 사례를 편집해서 다시 300명에게 보냈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라면서. 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변으로 확장되는 실천과 변화를 공유했죠. 그분들은 ‘자신들이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구나’를 느끼면서 함께 비움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었던 거죠.

‘소박한 자유인’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소규모의 비움실천모임을 가졌다. 그러한 작은 모임들이 탈핵신문읽기모임과 지역 곳곳의 소규모 순례단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청명은 두 가지를 내려놓으면서 비움실천을 시작하였다. 자본과 옷, 대표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많이 사고, 많이 버리고, 많이 소유하며 많이 바라게 만드는 이 두 가지를 버리자 자급자족적 삶이 가능할 것 같았다.

삼척 성원기 선생님이 2013년부터 핵발전 백지화를 위해 탈핵순례를 시작했어요. 2017년에 저는 결합했고, 핵발전소 4개 지역과 서울까지 가는 순례에 참여했죠. 당시 일을 해서 일주일 중 4일만 참여했어요. 이 순례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자본을 내려놨어요. 한 달에 얼마를 벌면 될까, 저의 시스템을 먼저 점검했죠. 다음에는 옷장을 봤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노동운동하고 직접 공장에서 일하면서 싸고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품(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순례하면서 처음에는 옷 2벌로 계절을 보냈고, 계절별로도 옷 2벌로 살기 시작했죠.

이렇게 비움실천을 하고 80일간 사람들에게 나누던 청명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비움길’을 만들었다.

일종의 순례죠. 근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야 하는 것을 뜻해요. 최소 10km 걸으며 오늘 만날 사람을 생각했어요. 비움길을 통해 홍세화 선생님을 만나기도 했는데, 처음에 “공부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데, 나를 잘 짓기 위한 길이다”라고 말해주었어요. 나를 잘 짓기 위한 공부란, 나에게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생각과 감각, 내가 가진 관점과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청명은 공부하고 실천하며 걷는 자신만의 ‘비움실천’을 만들어갔다.

청명은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점점 그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보통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을 주고 상품을 사서 선물로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수확한 작물을 줘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시스템에서 점점 더 저를 자유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소박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선택한 거죠. ‘으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진정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꼭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 그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소박해졌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욕망과 본능 그리고 미덕이라고 부르던 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찰했다. 남들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려는 것을 버리고,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고민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유연하게 이야기하고 다가가며 자신과 다른 삶과 목소리들을 제 안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편리하지만 우리를 쉽게 중독되고 복종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나’처럼, ‘우리’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사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부하며 다른 삶을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례하고, 탈핵신문도 배달하고 점심시간에 짧게 브리핑을 원하면 가서 기사도 읽어줘요. 길을 걷다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등 하루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거죠.

청명이 탈핵순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온도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순례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 관심, 한 마디, 표정을 보면 그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핵발전 이슈를 알고 있어요. 핵발전 전문가나 언론이 말하는 것이 아닌 이 시대, 우리의 현주소를 사람들을 통해 읽을 수 있어요. ‘시민들이 지금 이 정도까지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요. 순례를 통해 이 시대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청명은 순례 전 항상 본인이 쓴 기도문을 읽는다. 원래 제목은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되는 길’로 바꾸었다. 그가 길 위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읽는 기도문을 공유하며 이 글을 마친다.

사람이 그리운 세상, 여기 사람 하나 그리움 달빛에 걸어놓고 사람이 길을 간다.
함께 가야 할 길 그 길 위에 사람들 하나 둘.
희망은 씨앗이 되고 새싹이 되고 나무로 자란다.
나무가 또 나무가 되어 숲이 되리, 그 숲에서 생명을 노래하리.
여기 사람 하나 그리움 달빛에 걸어놓고 사람이 사랑이 되는 길. 오늘도 사람 하나 길을 간다.

2) 원전기행문을 쓴 시인 신혜정

움막 같은 농성장에 들어서니 집회 준비로 분주하던 주민 한 분이 우리 일행을 반가이 맞는다. 2014년부터 시작한 나라이리 이주대책위 사람들의 ‘이주대책 상여시위’가 8월이면 10년 세월을 맞는

다. 이주대책 농성장에서 4기의 돛이 보이는 월성핵발전소 앞까지 거리는 362미터 남짓이다. 코앞이라는 뜻이다. 나아리 주민과 울산, 부산, 밀양, 성주, 서울 등에서 온 연대자 스물네 명이 상여와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밀며 길고도 느리게 걷는다. 앰프에서는 애절한 상여소리가 울려 퍼진다. 상여시위대에 막힌 출근 차량의 줄이 길게 늘어서고, 인근을 지나려다 멈춰 선 차량 사이로 짜증스러운 경적이 울린다. “우린 10년을 기다렸는데 당신들은 10분도 못 기다리냐”는 소리가 상여시위대 어딘가에서 터져 나온다. 주민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여소리에 맞춰 자신의 이름을 적은 상여를 느릿느릿 끌어낸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마을은 바다와 핵발전소를 끼고 살아가는 마을이다. 에메랄드 물빛과 모래가 반짝이는 나아 해변에 차를 세우니 손에 잡힐 듯한 거리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늪름한 ‘문무대왕릉’이 자태를 드러낸다. 월성핵발전소 4기에 더해 신월성 핵발전소가 1, 2호기로 마무리된 것은 사적 158호로 지정된 문무대왕릉이 너무 가깝기 때문이라는 신혜정 시인의 말이 떠오른다. 시인의 말처럼 ‘나아 해수욕장’에서 해변을 보다가 고개를 왼편으로 살짝 돌리면 4기의 원자로 돛이, 다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해변에 자리 잡은 횃집이며 식당들이 보였다. 우연히 집어 들었던 책 ‘원자력의 거짓말’을 단숨에 읽고 대한민국 핵발전소를 찾아 7번 국도에 올라탄 신혜정 시인은 2014년 핵발전소 돛이 흰히 드러난 나아 해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만난다.

천 년 전 삼국통일을 완성하고 죽어서도 바다를 지키겠다는 유언에 따라 수중에 지어진 왕의 무덤 앞에 세워진 핵발전소를 보며 시인은 “다시 천년이 지났을 때 우리 후손은 우리가 남긴 핵폐기물과 원자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묻는다. 아름다운 여행길로 소개된 7번 국도와 77번 국도를 따라 줄지어 선 핵발전소를 찾아 나선 대한민국 원전기행문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에서 시인은 ‘돛이 보이는 나아해변’이라는 소재목으로 월성핵발전소 이야기를 전한다. 원자로 돛과 지붕이 나란히 뒤섞인 곳. 한국핵발전소만의 혼한 마을풍경이다.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

“아직도 영광에서 생명·평화·탈핵순례(이하 탈핵순례)를 하고 계신다고요?”

“5월 21일이면 600차 탈핵순례예요.”

2014년 5월 유난히 더웠던 날 22km를 걷고 기도하는 탈핵순례에서 만났던 기억을 되살려 보니, 아빨사 시인과의 만남이 10년의 세월을 건너왔다. ‘탈핵 잇다 시즌2’를 준비하면서 만난 책 ‘신혜정 시인의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 기행’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된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의 저자가 수줍게 인사하던 그때의 시인일 줄 몰랐다. 2015년 6월 출간되었으니 만 9년 만에 만난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는 여전히 탈핵 교과서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그사이 핵발전소가 24기에서 26기로 늘었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영구 폐쇄가 결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촛불정부의 탈핵 선언이 있었지만, 선언만 존재했을 뿐이고,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 폭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중이다.

이 책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라는 같은 물음을 안고 시인의 핵발전소 기행을 따라 읽었다. “인간은 어찌자고 저런 괴물을 만들었을까(75p)”라는 시인의 탄식은 나의 탄식과 같았고, 핵발전이 비윤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미완의 기술임을 설명하는 글에는 밑줄을 긋고 포스트잇을 붙이며, “외워버리자”라고 다짐했다. 책 뒷편에 붙인 132개의 주석을 따라가다 보니 시인이 읽고 탐구했을 책과 자료의 양을 짐작할 수 있었다. 탈핵이야기를 “쉽게 써야겠다”라는 시인의 다짐은 “쉽게 말해야겠다”라는 나의 다짐과 같았다. 만나기도 전에 시인을 만난 것 같았다. 부산한 5월, 합정역 카페에서 만난 시인은 한결 건강하고 경쾌한 모습이었다. 내가 대뜸 물었다.

“문명사에 관심도 많고 탐구력이 높고, 과학 좋아하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문장이 거대한 시스템에 접근하게 했죠

원자핵공학자이자 일본의 반핵운동가 고이테 히로아키는 자신의 책 「원자력의 거짓말」 서문에 이렇게 썼다. “여러분께, 특히 젊은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힘없는 내가 한심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기 전이었지만 코끝이 찡해왔어요.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핵발전소 관련한 책을 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왔고 관련된 책과 논문, 자료들을 찾아 읽었어요.

시인은 한국에서 발간된 30~40권의 핵발전소 관련 책을 찾아 읽었고 도서관, 원자력 관련 기관 자료실을 뒤졌다. 논문 읽기를 즐기고 문명사에 관심이 많은 시인은 온라인에서 의외의 자료들을 건져 올렸다. 사고들수록 핵발전소는 ‘전기’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핵폐기물은 폐기가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격리가 최선이던데 폐기 방법도 없는 핵발전소를 왜 운영하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읽고 자료를 찾으며 사고 들다 보니 어느새 정치와 권력, 군수산업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핵발전소 생태계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핵발전소 이야기와 자료를 찾기 어려웠고 국가기밀산업인 핵발전소는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았다. “제가 지도 보는 걸 또 좋아해요. 빨간펜을 들고 지도를 펼쳐 들었죠.”

7번·77번 국도 위에 서다

7번 국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도로 꼽히는 이 길은 강원도 고성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다. 울진, 경주, 부산까지 원전은 모두 7번 국도변에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전단지인 영광은 인천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서해안도로 77번 국도위에 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먼 이야기라 해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24기(2015년 기준)의 핵발전소를 눈으로 보고 싶었다. 지도에 점처럼 붉은 점을 찍으며 발전소들의 위치를 꿰 나가던 시인은 비효율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양수발전소가 있는 양양과 송전탑 문제로 몸살을 앓는 밀양을 첫 번째 기행지로 택한다.

강의 주변부에 인공저수지, 즉 댐을 만들고 그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산에 길고 경사진 터널을 만들어요. 만들고 남는 전력을 활용해 물을 상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전기가 모자랄 때 물을 하부로 떨어트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으로, 잉여전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로 핵발전소의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잉여 시설이에요. ‘양수(들어 올림)’하여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지요. 제가 양양 양수발전소를 보려고 하부댐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막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 내려가는데 무서워서 잠시 보고 돌아 나왔어요.

시인은 양수발전소 같은 보조 발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핵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증거라고 말한다. 발전은 했는데 쉽게 끄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출발은 했는데 멈추기가 쉽지 않은 기술이라는 것이다. 핵발전은 수요에 따라 스위치를 마음대로 온·오프 할 수 없다. 일단 운전을 시작하면 최소 일 년은 가동률 100퍼센트로 계속 발전해야 한다. 소비전력이 줄어드는 야간에도 가

동률을 조정할 수 없으니 남은 전기는 버려진다. 소비전력이 감소하는 봄·가을, 주말과 휴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남은 전기 소비를 위한 시설이 양수발전소이다. 양수발전소를 위한 임시댐은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책에는 남대천의 오염을 다룬 기사들을 실어놓았다.

핵발전소가 해안으로 간 까닭은 핵분열로 달궈진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시로 발전한 전기를 보낼 송전 시설이 필요하고, 송전탑 또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산골 마을 밀양이 송전탑 뒤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지요.

2007년 11월 ‘신고리원전-북경남변전소 765킬로볼트(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 허가’가 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송전탑 저지 투쟁은 이치우, 유한숙 씨 등 피해 주민이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 문제로 확산하였다.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산속에 움막을 짓고 저항해 온 밀양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으로 온 국민이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명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핵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송전선로, 변전소, 양수발전, 온배수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생겨요. 재산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송전탑건설 반대 투쟁은 핵발전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6월 8일 밀양행정대집행 10주년 집회 명이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다. 10년 전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시인도 하룻밤 목엿을 산꼭대기 127호 움막을 밀어낸 자리에서 승리의 V자를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경찰들의 환한 표정을 잊을 수 없다.

핵발전은 핵무기를 향한 욕망

최초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맨하튼 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개발한 핵무기는 1945년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돼 2차 대전을 종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핵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Atom for peace)’을 선언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원자력발전이었어요. 핵무기를 위해 비축해 둔 농축우라늄 연료를 사용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찾은 거지요. 핵기술은 발전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일상으로 들어왔어요. 영어로 핵발전소(nuclear power plant)니까 원자(atom)력발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덜 드러내고 감추려는 의도가 작용했던 거죠

시인은 책에서도 ‘원자력’은 ‘핵력’으로 ‘원자로’는 ‘반응로’로 사용후핵연료는 ‘핵폐기물’로 불러야 정확하다고 지적한다. 한수원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계속운전’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이 책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원자력발전소라는 일반화된 명칭을 사용하고, 이론적인 설명 등 필요한 경우 핵발전소라는 표현을 함께 썼다’라는 시인의 설명처럼 이번 인터뷰도 ‘원전과 핵발전’을 혼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인은 ‘원전’ 말고 ‘핵발전소’가 일반용어가 되는 것도 탈핵 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일이라 짚는다.

핵연료 자체가 전쟁의 기술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라늄 농축 농도에 따라 핵무기가 되기도 하고 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핵연료 자체가 살생을 전제로 만든 거잖아요. 전쟁 무기를 만드는 기술로부터 시작된 거니 윤리적인 수가 없어요. 전쟁으로 군수산업이 성장하고 권력을 키워가는데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죠.

시인은 핵발전소 생태계의 근간은 핵무기를 향한 욕망이라고 설명한다.

핵발전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간접적으로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 때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핵발전소를 받아들였잖아요. 소위 핵발전소 강국이라는 나라들 욕망의 본질은 같지 않을까요? 게다가 핵발전소는 가장 큰 토건 산업이잖아요.

‘핵’ 카르텔이 ‘핵’ 진흥 정책을 강고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말이다.

경주 방폐장과 온칼로

방폐장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바로 안전성 문제다. 주민의 수용성만으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1986년부터 시도한 핵폐기장 부지선정 때마다 큰 싸움이 일어났다. 울진, 영덕,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부지로 이름이 오르내리거나 확정이 된 후에도 목숨을 건 주민들의 투쟁이 이어졌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다. 비교적 방사능 오염정도가 약한 중저준위 핵폐기장에 대한 파격적인 예산지원과 홍보를 내세운 끝에 유치를 신청한 경주가 덜컥 선정되었다. 부실한 암반과 지하수 오염 등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차례에 걸친 중단으로 공사 기간을 훌쩍 넘기고 2015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되었다.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장은 300년 동안 안전하게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을까?

방사능은 짧게 30일에서 40일, 길게는 30만 년 이상 지속돼요. 30~40년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30만 년 이상 지속되는 방사능물질을 관리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런 비효율적이고 미완의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에너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해 자꾸 질문해야 해요.

핵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는 이미 주어졌을 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젊은이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 일이다. 30만 년 후 인류는 존재할 수 있을까? 세계 어떤 나라도 핵폐기물을 없애거나 방사능을 줄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부지선정까지 완료하고 사용후핵연료를 묻어 둔 세계 최초의 핵폐기장을 건설 중인 나라가 바로 핀란드다.

온칼로는 핀란드어로 ‘숨겨진 곳’이라는 뜻이다.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폐기물은 기준에 따라 최소한 관리 기간을 30만 년 혹은 100만 년으로 산정하기도 한다. 현생인류로 보는 호모에렉투스가 출현한 시기가 15만 년~25만 년 전이고 크로마뇽인이 유럽지역에 출현한 것이 3만 년 전이다. 시인은 “어떤 문명이 적어도 10만 년 이상 생존해서 온칼로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인간이기는 할까?”라고 묻는다. 온칼로의 고민은 10만 년이 지나도 ‘위험물’임을 알 수 있는 언어와 기호, 그리고 기술을 고안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온칼로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도처에 생길게 될 온칼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예요.

세계 33개국 164개 핵발전소 412개 원자로에서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온칼로가 최소한 33개 필요하다. 세계 최초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된 핀란드 울킬루오토 섬은 18억 년 동안 암반의 움직임이 없었고, 앞으로도 지각판이 움직이지 않을 곳이라는 예측이 더해져 17년 만에 부지로 선정되었다. 핀란드 온칼로는 오는 2025년 가동을 시작해 100년 동안 6,500톤가량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계획이다. 22세기에나 끝나는 프로젝트다. 활성단층 위에 핵발전소가 줄줄이 지어진 우리나라는 언감생심이다.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핵발전 기술은 미완이에요.” 시인의 말이 따깝다.

질문을 바꾸고 대안을 만들어야죠

단언컨대, 원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영양제인 줄 알고 마약을 손녀에게 먹였는데,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한 뒤로도 손녀가 계속 원한다는 이유로 끊지 않고 계속 제공하는 것과 같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아랫세대, 그다음 세대의 건강한 삶도 보장할 수 없는 사회시스템을 구성해 놓았다. 핵의 기반 위에 세워진 시스템은 다음 세대의 생존을 숙주로 삼고 있다. 시인은 질문을 바꾸자고 한다. 핵에서 벗어나자고 하면 따라붙는 질문이 ‘대안은 있는가?’이다. 핵발전소 없는 세상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전기수요’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보다 ‘질문’을 바꾸자는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질문한다. ‘탈핵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핵비확산 감시를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적할 만한 단체를 만들면 좋겠어요. 400개가 넘는 핵발전소가 줄줄이 폐로를 기다리고 있으니 앞으로 폐로 시장이 크게 열릴 거예요. 핵공학자, 핵기술자들은 천년 동안 일자리 잃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 ‘세계 폐로위원회’나 ‘세계 폐로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더 늦기 전에 핵발전의 안전한 퇴장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을 바꾸니 상상의 폭이 넓어진다. 2015년 12월 22일 설계수명이 다하는 한빛 1호기의 퇴장을 위해서 시인은 ‘한빛1호기 폐쇄 선포식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예산부터 선점하라고 제안한다. “돈이 있는 곳에 일이 따라오잖아요.” 2024년 지금, 2015년 시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상의 소란함에 눈감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시인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세계관이 필요한 거죠. 문학 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는 세계에 질문하지 않고 호기심이 없다면 과연 문학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스스로를 추동하지 않는 순간이 곧 문학에 대한 발판을 잃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시인은 아름다움을 노래하려면 ‘주변 탐구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핵발전소가 지속되면 아름다움이 사라지니 시인에게 탈핵은 문학 활동인 셈이다.

개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학습된 구조에 머무르지 말고 질문을 하면서 인식을 확장해 나갔으면 해요. 그러다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시위라도 한번 나갈 수 있고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신혜정 시인의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 기행 「왜 나에게 왜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나」는 ‘하루라도 피폭 노동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핵발전소와 노동이야기, 내 안마당은 안 되고 네 안마당에 지으라는 님비보다 더 지독한 지역차별 이야기, 우라늄 채굴과정부터 가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화학연료를 사용하고 온배수가 바다를 데워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등을 잔뜩 담고 있다. 그러니 독자들에게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시인의 마지막 당부다.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이 탈핵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말마따나 이제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때이다. 시인에게 후속작을 써야 한다고 졸라야겠다.

3) 기사에 맥락을 담으려는 장미쁨 기자

2~3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영상과 인터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월성 핵발전소에서 비롯된 삼중수소 누출 문제, 공동체 파괴와 이주 요구 등 의미 있는 기사를 만들어 온 장미쁨 포항 MBC 기자는 ‘새어나온 비밀’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2024년 5월 24일 3시간가량 지역 언론의 현실과 미래, 월성 핵발전소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그리고 나아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장선거 등 그가 오랜 시간 취재하며 고민해왔던 것들을 묻고 들었다. 포항 MBC 홈페이지 기자들을 설명하는 페이지(기자출입처 안내)에 장미쁨 기자의 출입처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법원, 검찰, 경찰, 소방, 문화재 연구기관, 월성원전.” 많은 기자와 방송사가 월성 핵발전소와 나아리 주민들의 상여 시위를 다루었지만, 그중 장미쁨 기사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그는 2021년 삼중수소 누출 문제를 보도하여 이 문제가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어떻게 월성 핵발전소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게 되었을까?

제가 2013년에 입사했는데, 상여 시위는 2014년 8월에 시작했어요. 경주 출입을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도 몰라서 죄송했죠. 관심이 없었고 그분들의 시위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기도 했었죠. 원전 문제는 친했던 선배들이 많이 썼고, 그 선배들에게 배웠죠.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고 나니 원전을 담당하던 선배가 포스코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원전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미 있었던 ‘멀치, 바나나 논쟁’부터 한수원의 고압적인 태도까지, 취재하면서 조금씩 원전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실 기자들은 부채감에서 시작하거든요, 이 사건이나 사람들을 잘 몰랐다는 것에 대한 부채감이나 미안함.

부끄러웠던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 역시 2014년 이후로 10년째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고 싶으며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매주 상여 시위를 하더라도 삼중수소 누출과 같은 사고가 나거나 굶직한 행사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싸움을 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기사로 나온다고 해도 사회, 정치, 환경이 아닌 ‘지역’ 면에 짙막하게 나오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장미쁨 기자는 “상여 시위하는 주민이 없으면, 우리는 원전 근처에서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싸움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원전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왜 다수는 원전에, 원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관심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핵발전에 관심을 갖지 않는 혹은 갖기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기

장미쁨 기자는 핵발전 업계가 강조하고 구축해왔던 프레임을 언급하였다. 특히 핵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과거 한국전력)은 핵발전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 강조하며, 무한한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에너토피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에너토피아는 그들이 지난 30-40년 동안 준비해왔어요. 체르노빌사고 났을 때도 언론은 조용했고, 우리나라 원전 문제와 연결하지도 않았어요. 보통은 사고나 위험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원전 문제나 상여시위하는 주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프레임으로 수행되어왔던 광고, 교과서 속 정보와 교육,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산업이 제공하는 지원들로 인해 여론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원전에 대한 여론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고민은 각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로 나온 거죠. 여전히 고민 중인, 원전은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마 같은 거죠. 단기적으로는 5·6호기를 짓되, 장기적으로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선택한 것을 보면요.

그는 탈핵을 달성하거나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있는 독일과 같은 해외 사례를 통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방식을 통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한 번에 원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고민하고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요구가 거세져야 바뀐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문제이고 법률의 문제이지만, 이는 부차적이고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와 싸움’이기도 하고요. 당장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받는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아야만, 연구나 기사 등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결국 외로웠던 싸움이 다수의 무관심했던 혹은 잘 몰랐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핵발전이 중요한 주제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다른 문제를 우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현재 우리 사회에 산적한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핵발전’은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이지만 중요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다시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장미쁨 기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고민의 무게를 고려하면 핵발전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여론’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바꾸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이나 기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의 해답과 도움, 실질적인 변화를 바라고 행동하는 것이 어찌면 본인에게는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글을 왜 쓰는가?” “나는 왜 연구하는가?”라는 나의 질문과 고민은 그가 던진 “나는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나는 어떤 기자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었다.

정의와 공정, 환경과 노동, 민주주의와 시민의 안전, 약자와 소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의미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짧고 전형적인 방송 기사에서 벗어나 기사에 맥락을 담으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읽고 경청해 주시면, 더 성실한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가 홈페이지에 적은 자기소개처럼, 짧고 전형적인 기사가 아닌 맥락을 담아 독자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핵발전’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이유를 시민 탓으로 돌리기보다 그들의 딜레마와 서로 다른 고민의 무게를 고민하고 있기에 ‘여론’의 실체를 감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더해 그가 고민하는 것은 바로 ‘한수원의 대응 방식과 태도’였다. 다른 이슈만큼이나 핵발전은 ‘찬핵과 탈핵 혹은 반핵’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이해될 만큼 찬핵 진영과 탈핵 진영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려오고 있다. 나 역시 핵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마다 벽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꼈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편협함 때문이 아닐까’를 고민하며 나 자신을 타하기도 했다. 수많은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들을 만난 장미쁨 기자는 한수원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해하고 있을까?

한수원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월성 핵발전소와 인접 주민들의 삶을 취재하면서 장미쁨 기자 역시 한수원이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 혹은 행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원전이 주요한 산업이고 에너지원이라는 측면 외에 한수원의 태도에는 강압적이며 비도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방사능물질이 다 걸러져서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지역주민에게 한수원은 이렇게 설명했지요. ‘문제없다’ ‘배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배출되지만 기준치 이하라서 괜찮다’처럼 한수원은 위협에 대응하는 논리를 계속해서 바꿔왔어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바뀌은 거죠. 최근에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요.

핵발전을 비판하거나 주민을 무시하거나 지원금으로 압박하기도 했던 한수원은 장미쁨 기자에게는 ‘소송’으로 대응하였다.

저한테도 소송을 걸었어요. 여러 건을 4년째 하고 있어요. 사실 언론사에 소송을 걸어 ‘누출이 없다’라며 우리가 마치 과장한 것처럼 만들려는 거잖아요. 누설된 영상이 잘못되었다며 정정보다고 ‘정정보도’ 1심 소송에서 한수원이 지니까, 반론보도로 다시 청구했어요. 저는 반론보도는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보도하기 전에 공문을 보냈고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다가 이후 정정보도 소송을 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니 다시 반론보도를 거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변호사도 이것을 ‘반론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어요.

장미쁨 기자는 2021년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제기한 다수의 소송에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2022년에 다큐멘터리 ‘새어나온 비밀’을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소송을 당하더라도 괜찮다며 스스로 단련해나갔던 것 같아요. 소송때문에 다큐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계속 재판을 준비하면서 삼중수소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최신 기사나 논문도 찾아봤던 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기자들은 기사를 써서 내보내면 끝이에요, 다음 이슈가 없으면. 근데 재판이 있으니까 계속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주제나 이슈에 대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장미쁨 기자는 “확신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한수원의 대응을 함께 고민했다.

왜 인정을 안 하지, 왜 막으려고만 하지. 소송당하면서 압박도 받았지만, 절대 위축되지 않았던 이유는 맞는, 옳은 일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뉴스를 만들고 특히 다큐 만들 때, ‘이렇게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점차 커지게 됐어요.

한수원의 이해되지 않는 행태를 이해하다: 과학이 아닌 무조건적인 신념과 신화 사이

장미쁨 기자는 내가 하던 고민, “왜 나는 핵발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왜 우리는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수없이 던졌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과학이 아닌 신념 혹은 신화의 언어로 문제를 대응하며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험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핵발전의 아성이 무너지는 것인가. ‘외부로 100%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이 과연 과학의 언어인가? 그들은 어쩌면 과학이 아닌 신화에 기대어 ‘원전의 아성’을 부여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언급하며, ‘탈핵과 반핵’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한수원의 행태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반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과학적이어야 할 이들의 언어와 태도가 결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과학은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오류가능성’과 ‘위험가능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잖아요. 원전을 찬성하거나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하면서 느낀 특징이에요.

그는 “가장 과학적이어야 할 집단이, 비과학적인 언어로 원전을 옹호하는 것”을 느리지만 힘주어 말했다. 삼중수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한수원은 ‘비계획적 누출’이라며 한사코 사건이나 사고로 불리는 것을 경계했다. 또한, 장미쁨 기자의 말처럼 최소한의 위험가능성과 유출가능성을 인정하고 ‘안전’과 ‘감시’ 그리고 ‘규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놓치고 ‘기준치 이하’와 ‘멀치 바나나’를 끊임없이 소환함으로써 논쟁의 핵심 이슈를 흐릿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수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인가... 저를 의심하고 비판한 적도 많았어요. 왜 나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지, 왜 그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만 보는 거지. 결국 제가 고민한 결과는 그들은 비판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여, “왜 핵발전을 안 믿어, 왜 핵발전을 의심해?”라는 고압적이고 전근대적인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중세시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신념이 만들어낸 태도와 행동이 아닐까요. 대학교 ‘과학기술철학’ 교양수업을 들었는데, 원전은 중앙집중적인 사회와 권위적인 사회에 적합한 과학기술이라고 배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 로버트 용크라는 학자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핵발전이 확대되면 이에 강하게 의존하는 국가, 즉 ‘원자력 국가’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원자력 국가는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가치보다 원전을 우선 보호한다고 경고하였다.

지역 언론의 미래: 밝지만은 않지만, 꼭 필요한 지역 언론의 가치

포항 MBC는 2021년 1월 7일부터 삼중수소 누출과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균열 등 월성 핵발전소 안전성과 관련된 보도를 잇달아 방송하면서 원인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 정치인은 “뺑뺑이하고 침소봉대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보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지역방송의 가치를 훼손하였다.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지역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지역 언론의 미래는 지역적 가치, 소외당하는 사람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모른 척한다면, 지역 언론은 그저 지역축제를 취재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홍보하는 창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지 고민이 돼요. 물론 그러한 기사도 필요하지만, 지역방송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지역 언론만이 아니라 기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회의적”이라며 현재 상황이 기자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말했다.

혼자서 기사를 쓰려고 해도 회사 안의 동료나 업계 동료에게 지지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죠. 제가 노조위원장을 해보니 방송국에 기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자가 7-8명이라면 비제작부서가 그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경영상황이 좋거나 회사가 잘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하고 원전이나 포스코처럼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을 취재하는 것이 예민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생각이 비슷하고 한편으로는 의지했었던 선배 기자들이 곧 은퇴하기에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커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포항 MBC의 경우에는 포스코와 한수원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니까, 그들을 취재하고 특히 사건이나 사고를 다룬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게다가 기사가 아닌 광고, 협찬처럼 기업의 수익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전반적인 기자와 저널리즘이 침체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광고나 회사의 만성적자 문제가 맞물리면서 보도를 제대로 하려는 기자들이 내부에서조차 힘을 못 받는 상황이 찾아지는 거예요.

‘광고, 협찬’과 ‘보도’를 두고 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이 충돌하고 실제 한수원이 그에게 제기했던 소송들까지. 이런 현실과 고민 속에서 장미쁨 기사는 작년 나아리 마을의 이장선거를 취재하면서 몽클하면서도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작은 마을, 나아리에서 벌어진 ‘위대한 승리’

2023년 3월 15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마을(370세대)에 이장선거 주민투표가 열렸다. 나아리라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나아리 이장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른다면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장 투표를, 장미쁨 기사가 왜 취재하고 보도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수년 동안 주민 갈등을 빚어온 원전지원금 사용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핵심 이슈였다. 2016년부터 이장을 역임하면서 60억 원 규모의 원전지원금으로 풀빌라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갈등을 빚어온 전 이장과 ‘의혹 해소’를 촉구하면서 화합과 발전을 강조한 후보가 경쟁하였다.

1,000명도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핵발전과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처럼 돈과 지원금을 위해 핵발전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마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주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보루가 될 것인지와 연결된 중요한 선거이기도 했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어차피 저는 전 이장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철중 이장님이 됐고, 부끄러웠어요. 우리 회사가 침체되어 다시 ‘저널리즘’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시기였는데, 이 마을은 투표를 통해서 핵발전을 지지하는 전 이장이 아니라 새로운 이장을 선택한 거죠. 전 이장은 너무 충실하게 한수원을 대변하던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후보가 한수원에 친화적이진 않지만, 뽑아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면 몇 년째 한수원과 사이가 좋았던 전 이장이 아닌 새로운 이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새로운 이장은 전 이장의 행태, 비리들을 비판하면서 나온 분이라는 거죠.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장 투표가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주민들이 변화를 선택한 걸로 보였어요. 제가 사실 큰 기대 없이 취재했고, 무기력감에 빠져있었는데 자극도 받고 감동했어요. 최소한 원전에서 나오는 지원금, 목숨값이라고 부르는 돈을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전 이장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나도 그랬다. ‘이주대책위’를 제외하면 다수 마을주민은 전 이장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한수원으로 부터 받는 지원과 혜택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여전히 이주대책위를 비롯하여 핵발전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빼떡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지만, 적어도 나아리 주민들은 ‘마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

제삼자가 보면, 주민 간 다툼이나 갈등, 돈 때문에 싸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익적인 명분이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없음에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싸우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이 이장 후보로 나왔잖아요. 이들이 평소에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없지만,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이예요. 물론 탈핵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목숨값으로 나온 지원금을 제대로 쓰겠

다, 바로 잡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이분들이 단번에 탈핵을 요구할 순 없겠죠. 그러나 마을에서는 탈핵만큼이나 중요한 나아리 마을 이장, 이장이 갖는 힘과 상징성, 한수원과의 관계를 통해 한수원에 너무 기울어진 이장에 경고한 거죠.

장미쁨 기자는 “내가 제 직업에 가지고 있는 확신 못지않게, 주민들도 문제가 있는 이장을 바꾸고, 지역과 동네에 대한 애정과 확신으로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선배들이 왜 자꾸 이걸 보도하냐고 했어요. 이장선거를 굳이 취재할 필요가 있냐며 이해하지 못했죠. 이들을 취재하면서, 신념 혹은 가치, 저널리즘, 기자에 대한 직업의식이 없으면 버티기가 쉽지 않은 우리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역에서 기사를 쓰는 것이 힘들면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기사를 쓰는 선배들을 만나 배우고 버틸 수 있었거든요. 물론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 힘들어지겠죠.

그는 여전히 기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역방송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2024년 5월 21일 <ESG 시대, 지역 미디어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장미쁨 기자는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와 기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역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지역이라는 소외된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의 가치가 쉽게 부정당하는 시대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장미쁨들’을 응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4) 돈 든 탑이 무너진다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10주년을 하루 앞둔 2024년 6월 10일, 5개 중단 환경단체 연대모임 종교환경회의 ‘생명평화순례단’을 맞아 보라마을을 안내하던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아래 밀양대책위)’ 활동가 남겨진 씨 얼굴에도 송전탑 그들이 드리운 듯하다.

고압 송전탑은 일반적으로 345kV(34만5천볼트)인데, 그 이상 용량을 가진 초고압 송전탑은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면적이 큰 나라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장거리로 옮겨야 하는 전기손실률을 줄이면서 송전하기 위해서 개발된 765kV는 한국에서는 과한 용량이에요. 765kV 송전탑 전선은 얼마나 뜨거운지 피복조차 할 수 없어요. 손목 굵기만 한 전선에서 뿜어내는 열로 고무가 녹아내리니 아예 피복을 못 하는 거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웅웅’대며 울어대요.

2012년 1월 16일 자신의 눈에 첩탑을 박으러 굴삭기로 밀고 들어온 한국전력(아래 한전) 용역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산외면 보라마을 이치우(당시 74세) 씨가 분신한 ‘보라교’를 건너니 눈 한가운데 100미터, 42층 높이의 765kV 첩탑이 우뚝 서 있다. 양쪽 산등성이에 세워진 첩탑 4기가 ‘타닥 타닥’ 소음을 내며 설새 없이 도시로 전기를 보낸다. 첩탑은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도, 고추를 심은 밭에서도, 감을 따는 산에서도 보인다. 집으로 들어가면 마당으로 따라오고 방안에서도 우람하게 솟은 첩탑을 피할 길 없다. 밤에는 비행기가 부딪치지 말라고 빨간불까지 깜빡이니 송전탑은 한밤중까지 밀양 주민들을 괴롭힌다. 농사용 항공방제는 언감생심이다.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 이후 10년이나 지났으니 “잇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만 뜨면 따라다니며, 존재를 과시하는 송전탑 보는 것도 힘들지만 깨진 마을공동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송전탑 찬성, 반대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찬성 주민끼리도 보상금을 놓고 갈라져 소송도 불

사하고 있어요. 집안 제사 불참은 물론 농촌사회를 지탱해 왔던 품앗이도 사라졌어요.

밀양 주민의 강력한 송전탑 반대에 직면한 한전은 마을공동보상과 개별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갈등을 키웠다. 남은 씨는 한전의 다층적 보상이 다층적 갈등을 빚었다고 말한다. 한전에서 제안하는 가구별 개별지원금을 받으려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송주법)’에 따라 765kV 송전탑에서 1km 안에 사는 주민은 전기·휴대전화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한전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을 지원 대상에서 뺐고, 마을 발전기금까지 일부 주민이 나눠 가지면서 갈등은 깊고 넓어졌다.

송전탑 완공 후 한전과 공권력은 떠났어요. 송전탑이 서 있는 이곳도 매년 모내기해요. 주민들은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국가는 갈등만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국가폭력은 여전히 밀양을 지배합니다. 회복하기 어렵죠.

밀양 땅 90km를 관통하는 161기 송전탑 중 52기 공사를 위해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8만 명의 경찰을 동원해 쇠사슬을 목에 걸고, 걸쳤던 옷까지 벗어 던진 밀양 주민의 저항을 끊어냈다. 2014년 6월 11일 2,000명의 경찰을 동원해 마지막 남은 산속 농성장 101·115·127·129번을 짓부수고 바로 그 자리에 송전탑을 세웠다. “철탑 심는 일은 다음 날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국가폭력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가혹하고 잔인하게 세워진 밀양송전탑 송전율은 2024년 7월 현재 20% 남짓이다.

밀양행정대집행 10년,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

2023년 6월 8일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0년,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아래 밀양10년)’가 열렸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22대의 버스가 출발했고, 223개 단체, ‘밀양의 친구들’ 1,500여 명이 10년 만에 밀양을 찾았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내리는 비를 뚫고 사람들이 밀양으로 몰려들었다. 탈송전탑·탈핵 운동을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18개 마을 143가구의 밀양 주민들은 뜨겁게 반기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시 만난 ‘밀양의 친구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집회가 끝나고 사진을 모아 놓고 보니 결의대회인지, 송전탑을 뽑아낸 뒤 열린 잔치인지 헷갈렸어요. 싸우자는 결의의 자리를 즐거움으로 채우는 것이 밀양의 힘이에요. 밀양은 앞으로도 전기를 만들고, 나르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눈물 흘리지 않도록 싸울 겁니다.

“밀양10년 행사 이후 어떻게 지냈느냐”라는 질문에 남은 씨는 “2주 동안 밀린 목수 일을 하며 허전함과 외로움을 떨쳐내려 했다”라고 한다. 밀양대책위 활동가 남은 씨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목수다. 다행히 활동가 목수, 목수 활동가 두 직함 사이에 거리감은 없어 보인다.

2014~2017년까지 행정대집행 이후 ‘탈핵탈송전탑원정대(아래 탈탈원정대)’를 만들어 전국을 다니면서 송전탑 뒤에 핵발전이 있음을 알리고, 생산-송전-소비까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전기를 어떻게 정의롭고 평등한 전기로 만들 것인지 고민했어요. 밀양은 탈송전탑·탈핵운동을 쉽 없이 이어갔지만, 행정대집행 이후 관심도 멀어지고 돈도 떨어지더라고요. 2018년부터 먹고살기 위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건설 현장 노가다도 뛰고 택배에서 상하차 일도 하면서 밀양대책위 일을 병행했어요.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일을 찾다가 나무를 만지면서 설계대로 자르고 붙이는 목수 일을 만났는데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차에 연장을 신고 다니면서 프리랜서 목수로 살았어요. 밀양대책위 활동가에서 주민1로 밀양 할매·할배들 곁에서 살게 됐죠.

남어진 씨는 2년 전 밀양에 작업장을 연 목공소 대표이다. 그동안 동료 목수도 생겼고 목수 6년 차 경력도 쌓였다. 밀양 1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 3개월 정도 일을 접었더니 매달 생기는 적자가 부담이다. 돌아보면 연장 차에 신고 일을 접었다, 폼다 했던 때가 마음은 편했다. 그래도 목수라는 직업은 필요할 때 탈송전탑 현장을 지킬 수 있으니 남어진 씨에게도, ‘밀양대책위’에게도 고마운 일이다.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아래 밀양투쟁) 이후, 한전이 더는 마음대로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765kV급 공사는 포기하고 500kV 이하, 전파파가 덜 나온다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바뀌었어요. 밀양투쟁으로 만들어진 ‘송주법’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보상 금액이 커졌죠. ‘탈탈원정대’나 ‘탈탈낭독회’를 위해 전국을 다니면 밀양 덕분에 지원금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아요. 20여 년 동안 이어진 치열한 밀양투쟁을 보면서 “보상금이 아무리 많아도, 송전탑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인식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밀양투쟁의 성과죠. 한전도 밀양투쟁을 교훈 삼았는지 송전탑 예정지 주민들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민을 갈라치기하고, 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한전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려는 홍천, 봉화, 평창 등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송전선이 지나가는 마을에 지급한 한전 지원금 규모는 전체 2,649억 원으로 이 지원금은 국민이 낸 전기 요금에서 나간다. 7월 21일 <경향신문>은 ‘한국전력이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10년 동안 식사와 여행 등에 25억 이상을 썼다’라고 보도했다. 울진 2억8087만원, 삼척 1억8697만원, 봉화 1억5993만원, 영월 1억5358만원, 정선 2억5276만원, 평창 2억7203만원, 횡성 4억6902만원, 홍천 2억4500만원, 양평 4억4020만원, 가평 4612만원 등 총 25억이 송전탑 예정지에 뿌려졌다. 밀양 주민들은 한전의 ‘돈지랄’이 마을공동체를 망쳤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공기업인 한전이 돈으로 주민을 매수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밀양에서와 같이 10년 후 강원도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밀양처럼 돈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깨지는 일도 반복될 거예요.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밀양10년’ 주제처럼 탈송전탑 운동은 여전히 지역주민의 눈물을 타고 전국으로 흐르는 중이다. ‘345kV 북당진-신탄정 송전선로’는 11년이나 지연되었고 동해안 핵발전소, 화력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도 2019년 완공 목표를 훌쩍 넘었다.

‘밀양10년’은 지역에 갇히지 않고 밀양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다음 투쟁을 약속하는 자리였어요. 탈송전탑 운동은 해당 지역, 특정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향한 운동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목공소는 동료 목수에게 맡기고 지난 2월부터 밀양 시민사회단체와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다. 당연히 밀양대책위 어른들과 먼저 상의했다. 남어진 씨는 밀양 어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일이 그려지고,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밀양 어른들 곁에서 일하며 배운 지혜이다. 4월 말 전국에 퍼져있던 ‘밀양의 친구들’이 재연결 되었고 전국구 ‘밀양10년’ 기획단이 완성된다.

기획팀·조직팀·홍보팀으로 구성된 ‘밀양10년’ 기획단에 40여 명이 모였어요. 기획단은 ‘밀양 송전탑 투쟁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결’과 ‘재미’에 공을 들였어요. ‘탈송전탑·탈핵’을 외치는 자리에 오랜만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참여자 중 절반이 밀양을 처음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청년들도 꽤 많이 왔는데 ‘무엇’이 제 또래 청년들을 ‘밀양10년’ 행사에 오게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연락처라도 알면 묻고 싶어요.

밀양은 아픈 관절

‘밀양10년’ 행사를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라고 내세운 것은 건설을 재개한 핵발전소든, 수명을 연장하려는 핵발전소든, 신규이든 핵발전소는 전부 틀어막겠다는 야심 찬 결기였다. 송전탑을 증설하지 못하면 삼척 블루파워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도 못 돌리고, 울산 울주군에 짓겠다는 신규핵발전소 계획도 물 건너간다. 탈송전탑 운동이 ‘윤석열 정권의 핵폭주를 막을 수 있는 주요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10년 전 밀양 철탑 예정지 움막 하나를 지키는 것이 신규핵발전소를 막는 길이라고 했던 산속 농성장 밀양 주민들도 그리 말했었다.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에서 밀양투쟁을 담은 영상도 보고, 나에게 밀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는 ‘엽서쓰기’를 했어요. 엽서를 쓰고 돌아가면서 인사 겸 엽서 읽기를 했어요. ‘서로 각자가 맞이하는 밀양 10주년의 의미를 나누자는 취지였죠. 800장의 엽서가 밀양대책위 사무실에 있는데 내용이 엄청나요. 제가 꼽은 베스트 엽서는 ‘밀양은 나에게 아픈 관절이다’였어요. 송전탑이 뼈마디처럼 생겼잖아요. 밀양 할매·할배들의 상한 마음과 아픈 몸을 상징하는 것 같아 웃기면서도 웬지 슬펐죠.

‘밀양의 친구들’은 억수같이 퍼붓는 비를 맞으며 10년 만에 움막이 있던 자리, 철탑이 꽃힌 현장을 찾아 ‘웅웅’ 거리며 돌아가는 송전탑 아래 섰다. 밀양 주민이 현재 감내하고 있는 고통의 체험이었고, 다시 싸우자는 연결의식이었다. AI, 반도체 등 전력 과소비 산업이 기승을 부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송전탑을 피해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탈송전탑 운동은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호남지역은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전기를 도시로 보낼 송전탑을 건설 중이고 수백 개의 송전탑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바탕으로 만든 전기를 쓰지 말자’는 각성제 역할을 한 밀양투쟁은 ‘에너지 생산은 소비자와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했고 ‘지자체별로 전력자급율을 높이는 분산형 발전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논의를 진전시킨다. 남겨진 씨가 ‘탈송전탑운동이 기후정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전기’에 끌려 들어온 밀양

열여덟 살이었던 남겨진 씨를 밀양으로 이끈 것은 ‘전기’였다.

밀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군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밀양 투쟁에 대해 간간히 듣고 있었는데 ‘전기’라는 말에 끌렸어요. 저도 전기를 쓰잖아요. 밀양에서 ‘전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어요. 2013년 10월, 밀양 너른마당에서 행사가 있다길래 무작정 밀양 가는 버스를 탔어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와서 밀양까지 오는데 고생 좀 했어요.

전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밀양에 오면서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꺼림직했던 18세 소년은 핸드폰 없이 밀양에 도착했고, 누군가 바드리 마을 101번 농성장으로 가라고 했다. 산비탈에 있었던 바드리 마을에 도착한 소년은 한전 용역과 경찰이 막고 있는 길을 트면서 101번 농성장에 올랐다. 101번 농성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년은 자신을 ‘군위에서 온 남겨진’이라고 소개했다. 어진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렸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중학교 소풍 갔을 때 한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진이라고 소개했어요. 어진이라는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내가 저 이름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드리 마을 첫인사에서 ‘남어진’이라고 소개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남어진이 되었어요. 사회적 이름을 스스로 지어서 그런지 마음에 들어요.

학교도 빠지고 ‘전기’ 때문에 싸운다는 밀양으로 향하는 아들을 터미널까지 태워다 왔던 아버지는 다음날, 아들 핸드폰과 쌀 한 가마니를 싣고 바드리 마을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저와 아버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학교 안 가고 밀양에 있어도 크게 말리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비상이었죠. 연락이 잘 안되자 담임선생님이 농성장으로 찾아왔어요. 초임이었던 담임선생님은 첫 제자가 학교 말고 투쟁 현장에 버티고 있으니 난감했을 거예요. 담임선생님에게는 미안했어요. 얼마 전 결혼하신다길래 축의금은 보냈어요. (하하)

학교와 실랑이를 벌이며, 두 달여 밀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2013년 12월 2일 상동면 고정리에서 돼지를 키우던 유한숙(71세) 씨가 ‘살아서는 내가 저것을 못 볼 것 같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을 시도했고 6일만인 12월 8일 숨을 거뒀다. 밀양대책위 사람들은 이치우 씨에 이어 두 번째 피해자가 나타나자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밀양대책위와 고 유한숙 씨 장례위원회가 12월 8일 오후 밀양시 삼문동 영남루 맞은편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분향소는 차리자마자 경찰에 의해 뜯겨나갔고, 천막 기둥을 잡고 안간힘을 쓰던 남어진 씨는 기둥 사이에 머리가 끼면서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앰블런스에 실려 갔는데 2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다시 병원을 나와 분향소로 갔어요. 그때부터 60여 일 동안 유한숙 어르신 영정을 들고 길바닥이나 다름없는 분향소를 지켰어요. 사람이 죽는 것도 처음 봤는데, 죽음마저 사수해야 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눈과 이슬, 한기를 가리기 위해 비닐이라도 칠라치면 경찰과 한바탕 밀고 당겨야 했고, 박스로 허름한 벽을 치고 하루하루 분향소를 지키는 것이 투쟁이 되었다. 죽음을 둘러싼 한전과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하며 18세 남어진 씨는 학교를 자퇴하고 밀양대책위 활동가가 되었다.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과 분향소 사수 투쟁은 제가 경험한 12년 ‘밀양투쟁’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비극적 장면이에요. 학교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죠.

밀양대책위와 유족은 59일 만에 밀양시와 협의를 거쳐 1월 28일 삼문동 강변둔치 공영주차장에 컨테이너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한전은 사람이 죽든 말든 송전탑 공사에 열을 올렸다. 밀양시 4개면 전체 52개 송전탑 현장 가운데 9기가 완공되고 20곳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 한전은 6월 11일 행정대집행을 향해 돈으로 주민들을 가르며, 맹렬히 송전탑을 밀양 땅에 박아댔다.

돈 든 탑이 무너진다

‘밀양10년’ 행사에서 밀양할매가 1,500명의 사람들을 보고 감격했는지 “우리는 졌지만, 사람을 남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는 늙어서 죽겠지만, 너희들은 송전탑을 꼭 뽑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송전탑이 마을에 존재하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삶을 망가뜨리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2021년 온라인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 투쟁 기록관’을 만들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 용기가 필요할 때 들

락거리는 곳이에요. 박배일 영화감독, 이재각 사진작가와 밀양을 기록한 수십 명의 사람으로 ‘기록관 준비팀’을 꾸렸어요. 3개월 정도 계획했는데 그해 12월에 개관했으니 기록관을 만드는데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때도 목수 일을 잠시 접었었죠. ‘밀양10년’을 마치고 오랜만에 기록관에 들어가 보니 밀양할매들의 ‘입말’이 살아 떠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든 탑이 무너진다’ 이런 말들은 구호로 외칠 걸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온라인 기록관은 “밀양·청도가 왜 싸워야 했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기 위한 공간이다. 수많은 사진과 자료 중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투쟁’ 액기스만 모은 76.5장면은 ‘1장 이 산이 진짜 좋아예 / 2장 갈 산이 없다 / 3장 밥은 먹고 가라 / 4장 버티는 거죠,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은’이라는 소재목을 달고 76장의 사진과 글을 배치했다. 목에 쇠사슬을 걸고 된장국에 밥 먹는 밀양할매들과 송전탑이 곧 박힐 산을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경찰과 한전의 거침없는 공권력에 맞선 주민과 연대자의 단단한 뒷모습, 연대의 비밀병기였던 비빔밥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2014년 6월 이전으로 돌아간 듯 하다. 여느 농촌 마을 일상과 풍경이 다르지 않았던 밀양은 이제 765kV 송전탑이 뺨뺨이 박힌 살풍경으로 남았다.

단호하고 다정한 연대

밀양주민들은 “연대자들하고 같이 먹었던 밥, 나누었던 이야기의 힘으로 지금껏 버텨왔다”라고 말한다. ‘밀양투쟁’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아픈 사람들끼리 기대니 덜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폭력의 기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쇠사슬만 있지 않았다. 누룽지, 고구마, 라면도 있고 너나없이 둘러앉아 먹은 밥상도 있었다. 고생스러웠던 산속 움막에서 구워 먹었던 고등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도, 까만 밤 산길을 헤치고 달려온 연대자들이 내민 바나나가 그토록 달콤한지 산 아래로 내려오고서야 알았다. ‘밀양투쟁’을 일군 동력은 ‘연대’였다. 여전히 밀양대책위 활동가로 살아가는 남은 씨에게 ‘연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때론 처절하고, 때론 지루할 수 있는 하루를 지켜내야 하는 산속 농성장 싸움을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산속 움막 같은 현장은 없지만, 사람을 대하는 밀양주민들의 ‘태도’가 연대를 잇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꾸준히 밀양을 찾는 연대자들이나 처음 밀양을 찾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밀양주민들의 한결같은 꾸준한 ‘태도’는 산속 농성장이나 산아래 마을에서나 다를 바 없었어요.

‘돌보이는’ 탈핵

신규핵발전소 터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밀양투쟁 이후 송전탑 터 또한 찾기 어려워졌다.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핵발전 수명연장도 해야 하고, 송전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송전에 의지한 전력 정책을 바꿔내지 않는 한 누구든 ‘전기’로 인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밀양주민과 남은 씨가 여전히 탈송전탑·탈핵 현장을 지키는 이유다.

‘이번 9월 7일 기후행동은 탈핵 대오가 돌보였으면 좋겠어요. ‘탈핵이 기후정의다’라는 구호아래 3만 명의 탈핵 깃발 대오가 신나게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영광, 월성, 고리, 울진 등을 돌면서 탈핵 기후행진을 벌이는 거예요. 어때요?’

‘탈핵’을 돌보이게 하고 싶다고 눈을 반짝이며 말하던 남은 씨는 체감온도 50도에 육박하는 밀양목공소에서 혹독한 8월의 여름을 나고 있다. 피할 길 없는 더위와 맞서며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외치면서도 탈송전탑·탈핵 연대 요청에는 두말없이 현장으로 향한다.

500kV 송전탑 반대운동을 하는 홍천 주민은 “홍천 다음에 또 강원도에 송전탑이 들어설까 봐 싸운다”라고 말해요. 탈송전탑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싸울 때 지금의 싸움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싸우는 거죠. 밀양 주민들은 제2의 송전탑 반대를 외치고 강원도에서는 제3의 송전탑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쳐요. 탈송전탑 투쟁은 ‘다음’과 ‘미래’를 잇는 투쟁이에요.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향후 후손 7세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아메리카 선주민 이로쿼족의 ‘7세대 원칙’처럼 남겨진 씨와 탈송전탑 현장에 선 사람들은 다음 세대와 제2, 제3의 피해지역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밀양10년’ 행사에 온 초등학교 이 남긴 엽서에는 “밀양은 나에게 큰 산입니다. 나는 밀양을 위해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라고 썼다. 고등학교이었던 남겨진 씨가 버텨낸 밀양투쟁은 이렇게 세대를 잇는다.

5) 핵발전이 반대하지 않아도 주민이다

현장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가 가진 문제의식과 비슷한 논문을 읽게 되었다. 황정화의 박사학위논문 <지방공간정치와 주민주체의 형성: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울진 북면 연구>는 나에게 위안과 고통을 동시에 주었다. ‘그래, 이게 좋은 현장 연구지’라는 위안도 잠시, ‘내가 이 논문보다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 연구와 차별적인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뒤따랐다. 기존 핵발전소 주민을 다룬 연구들은 그들이 탈핵운동하는 순간에 주목하여 ‘핵마피아에 저항하여 싸우는 사람’, ‘에너지전환을 이끄는 이상화된 존재’로 바라볼 뿐 그들의 일상이나 삶에 주목하지 않는다. 반대로, 핵발전소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돈과 지원금’을 밝히는 사람 혹은 ‘위험과 이익을 교환하는 사람’으로 호명할 뿐, 왜 그들이 핵발전소를 지지하거나 찬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황정화의 울진 북면 연구는 나에게는 나침반이었지만 나는 그 논문을 조금이라도 뛰어넘어야 했다. <탈핵있다 시즌2>를 하면서 황정화를 떠올렸고 그는 흔쾌하게 인터뷰를 허락했다. 2024년 8월 6일 저녁에 만나 두 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는 모른 척할 수도, 아닌 척할 수 없던 위험

그의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주제가 핵발전소인 만큼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그는 언제부터 핵발전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부끄럽지만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반핵운동이라는 게 생겼던 시기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인데 제가 그걸 겪었던 세대는 아니거든요. 제 삶에서 원전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후쿠시마 사고죠.

2011년 3월 11일, 누군가에게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평범했던 하루가 그에게는 어찌면 평생을 바꿀 하루였다. 황정화는 이 사고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

체르노빌사고도 알고는 있었어요, 발전소 둠이 시멘트로 덮여있는 걸 본 적 있어요. 근데 후쿠시마 사고는 폭발할 때 영상을 직접 뉴스로 봤어요. 원자로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쿠시마 사고가 저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가시화된 위협에 대해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구나, 아닌 척할 수 없구나, 앞으로도 나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을 거다’라는 두려움이기도 했어요.

황정화는 ‘전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전기가 만들어지는 지역, 핵발전소 주변에선 누가 살아가고 있는지’와 같이 그동안 고민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에너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제가 원전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매일 전기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전기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이 공간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거죠. 그러한 위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박사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후쿠시마, ‘지방’과 ‘환경’을 고민하기 시작하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고, 황정화는 2012년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 후쿠시마 사고가 그의 학업에도 영향을 준 것일까?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분명한 목표 의식은 없었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저에게 어렴풋이나마 질문을 줬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각, 내 일상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어떤 공간 속에 설치되고, 그 인프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죠. 그런 생각을 하니, 지방공간과 환경문제를 연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방의 환경문제를 새롭게 보고 싶어졌던 거죠.

지방과 환경이라는 굵직한 주제를 갖고 2년간 학위과정(course-work)을 보내면서, 그는 핵발전소에서 살아가는 ‘주민’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황정화가 ‘지역주민’에 호기심을 넘어 진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이유와 과정은 흥미로웠다.

정치학에서 ‘지역주민’이라는 개념은 한쪽으로만 정의됐어요. 특히 민주주의나 주민자치를 말할 때 주민은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동원되거든요. 저는 그런 시선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주민은 항상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대항 담론을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존재이지만 한가? ‘주민’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정작 연구자들이 주민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아가 황정화는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의 관점으로만 주민을 바라보는 연구들에 뼈뺀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주민은 무조건 대안적인 존재일 거라는 결론에 너무 쉽게 도달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에 주민을 끼워놓은 것처럼. 근데 전 지역과 주민을 잘 이해하기 위해 현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제가 조금 분명해졌고, 결국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을 연구하게 된 거죠.

찬성과 반대가 아닌 ‘정치적인 주체’로서의 주민에 다가서다

주민을 민주주의를 위한 이상적인 존재로 설정하는 것처럼, 핵발전소 주민 역시 보통은 ‘탈핵’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전사 혹은 영웅으로 그려진다. 이에 대해서도 황정화는 다르게 보려고 노력했다.

반핵의 주체를 보통 지역주민으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반핵운동을 분석하는데, 지역에는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민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반핵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는 맥락이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주민을 반핵의 당사자로만 바라보는 연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주민을 정치적인 존재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주민을 찬성과 반대가 아닌, 어떤 맥락과 상황 속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주체로 접근하려는 황정화는 네 개 지역에서도 울진 북면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영광에도 갔었어요, 공무원도 만나고 반핵운동 하는 분이나 농민회 소속 주민도 만나는 등 다섯 분 정도 만났어요. 근데 울진이랑 영광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겠더라고요. 특히, 울진은 반핵운동하기에 너무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영광은 그래도 반핵운동을 함께할 종교(원불교)나 인근 지역 시민단체도 있는데, 울진은 그런 게 없어요. 두 지역을 비교할 수 없고 또 일반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보통 원전 연구는 4개 지역을 다 연구해서 특징이나 문제를 일반화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포기하고, 울진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싶었어요.

황정화는 “특정한 집단의 내부적인 관점에 접근하여 집단 속의 권력관계, 권력구조, 권력의 재현 방식 등을 파악”하며, “저항과 적응의 복잡한 방안을 재구성하는 권력관계의 결절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정치문화기술지(political ethnography)라는 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3년이 넘게 연구에 매진했다.

에스노그래피(문화기술지)로 연구를 했던 것은 이분들이 공간을 통해 체험한 것이 무엇이고, 해석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기존연구가 충실하지 않고 주민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 오히려 그분들의 증언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따지기보다는, 그분들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 체험,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한 공유된 해석들.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자 했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주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난 그것을 듣고 기록했다

황정화는 울진 북면을 연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누구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고, 관심 갖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들의 말을 들은 것이라 생각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반핵하는 사람은 이분들 얘기 잘 안 들어요. 찬핵하는 사람들, 한수원에게도 이분들은 솔직하게 이야기 못 하겠죠. 학생이고 연구자인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도 이 사회가 그분들에 주목한 적이 없거든요.

국가가 전원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해야 하는 장소, 즉 울진 북면과 같은 곳은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는 로컬로 재생산되었다.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 저발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원전을 수용하며 협상해왔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원전에 의존된 북면의 경제구조는 ‘원전지원금’을 바탕으로 주민 자율성을 제한하는 지배 혹은 종속의 요소로 기능하였다. 국가는 울진 북면과 주민을 핵발전소에 적합한 지역과 개인으로 만들었지만, 주민이 수동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황정화는 ‘지방공간정치’라는 개념으로 제한된 환경과 자원 안에서 주민들이 정치적 주체로 행위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원전을 국산화해서 수출상품으로까지 육성하려는 국가의 목표를 위해 공간을 재구성하고, 주민들을 통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는 특정한 공간이 생겨나고 그 공간의 영향을 받는 주민을 ‘지방정치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보고 싶었어요. 국가와 지방만이 아니라 원전에서 일하는 한전/한수원 노동자들과 북면 주민들 사이의 위계적 권력관계, 더는 경제발전을 체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경제·사회적으로 의존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북면 주민들은 울진군과 원전을 확대하려는 국가에 함께 대항하면서도 때로는 원전지원금 배분을 두고 울진군과 경쟁도 하는 정치적 주체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 조건들 속에서 ‘정치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들만의 정치와 전략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분석이나 이해 없이, 우리가 그분들을 단순히 ‘원전에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신고리 5·6호기 공론을 무시하고 지역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행위자’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가, 현장에서 오히려 그런 단순한 비판과 해석을 경계했던 것 같아요.

황정화는 “내가 거기 살았어도, 그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거기에 산다면, 찬핵과 탈핵이라는 구분이 아니라 다수 원전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나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전략을 고민하고 결국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주민에게는 나름, 그 지역에서 살아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존재를 지워지지 않게 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의 비판처럼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핵발전소를 건설할 때나, 최근 탈원전 정책에 의해 핵발전소 건설이 중지되었을 때도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를 황정화는 “북면 주민들은 원전 근처에 사는 대가로 지원금을 받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는 쉽게 부인된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여전히 주변적인 주체인 ‘서발턴’같은 존재인 거죠”라고 말했다.

주민을 의미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면 그들과 원전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텐데, 그저 지원금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들로 여기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원전과 맺어온 이해관계, 살아온 방식, 태어나서 자라온 공간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또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죠. 또한, 원전지원금을 활용하는 것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비도덕적인 돈’을 받는 것도 아니예요. 지원금이나 원전건설에 대해 한창 열을 올려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속상함을 비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릴적 자유롭게 다니던 아름다운 바닷가를 이제는 잃어버렸다고, 그대로 있었다면 틀림없이 북면의 관광자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죠.

황정화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추진했던 전 정부 역시 주민을 주변적 존재로만 대할 뿐 그들이 원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원전과 함께 살아왔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의미 있는 파트너가 되어줬어야 했어요. 환경부나 산업부가 지역주민과 그런 협력적 관계를 만들지 못했는데, 어떻게 수십 년 원전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탈원전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고려 없는 정책으로 주민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시민사회가 주민을 바라보는 관점도 참 아쉽죠.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과 이념이나 정치적 노선이 같을 때만 ‘주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표현과 시선들이 주민들을 ‘탈정치화’한다고 느껴졌어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조건부 협력관계

황정화는 정수희의 석사학위논문 <핵산업과 지역주민운동: 고리지역을 중심으로>가 그가 연구할 때 큰 도움을 받았던 연구라고 말하면서, 정수희의 연구에서도 “부산지역의 반핵운동이 지역주민과 연대할 때 아쉽지만 섬세하게 하지 못했고, 탈핵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지역에 왔기에 지역주민이 그들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탈핵단체가 주민에게 장기적으로 함께 행동하면서 원전을 줄여나가는 목표에 같이 협력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죠. 만약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제시했을 때, 울진 북면에 주민들과 연대하는 환경단체가 남아있었다면, 주민들은 그들과 함께 전략적·정치적인 선택을 논의할 수 있었을 텐데. 원전 가동을 중지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이 지역이 원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갈지 대화할 파트너가 없었다는 게 안타까워요.

황정화는 그런 면에서 ‘핵발전이 우리 마을에 없어도 되는 삶’에 대한 상상력이나 대안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탈석탄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실제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고 지역에 새로운 방식의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을 본다면, 이분들도 충분히 '원전'을 택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원전을 닫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두려운 거죠. 이 지역이 빠르게 공동화되고 황폐화될 거라는 공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선례가 되어 주민들도 원전만이 해답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오랜 시간 현장 연구를 진행했던 황정화와 '연구를 마친 뒤 떠날 때의 어려움'과 '연구 이후 주민들과 어떻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도 그러한 고민을 했다. 주민 삶이나 운동은 끝나지 않았지만, 연구자의 연구에는 끝맺음이 있어야 하기에 논문에는 보통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적는다.

몇 분한테만 논문을 보내드렸고 다시 가지는 못했어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논문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분들이 '원전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제야 논문발표도 했어요. 논문에도 조금 언급했는데, 북면 주민들도 탈원전에 대한 대책을 한수원과 같이 협의를 하더라고요. 북면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는 건 한수원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런 점에서 바람이라면 신뢰받는 연구자들이 주민들과 다양한 네트워크의 매개자들이 되어준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아쉽고 미안하죠.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을 풀거나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사람을 연구하고 그들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황정화가 느낀 미안함과 아쉬움 그리고 죄송한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삶이나 운동을 기록했던 게 실은 나의 학위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한 것은 아니냐는 죄책감과 함께, 연구한 뒤에도 크게 바뀌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황정화의 연구는 주민과 지역을 찬핵과 탈핵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봐오던 기존 연구의 틀을 깨고, 주민이 싸우는 혹은 싸우지 않는 이유를 그들의 정치적 주체성 속에서 이해하려 했다. 또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부만이 아닌 축소하고 폐쇄하려는 정부에게조차 그들은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나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명이나 서발턴처럼 그들은 그렇게 주변화되고 소외되기 일쑤였다. 어쩌면, 황정화는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기록했으며,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나에게도 어려운 숙제처럼 남아있지만, '싸우지 않아도 주민이다, 핵발전을 지지해도 주민이다.'를 몇 번이고 읽었다. 더 많은 황정화들이 앞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기를 바란다.

6) 10만 탈핵대오 만들 때까지 탈핵퍼레이드 해야죠

나무담요직업연구소(아래 나무담) 장소의 대표에게 퍼레이드는 일종의 거리연극이다. 역동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관객과 만나야 하니 매년 같은 내용을 거리 무대에 올릴 수 없다. 장소의 대표가 연출하는 퍼레이드는 늘 참여자들과 사전작업을 한다. 퍼레이드에 사용할 소품을 만들고, 줄기와 가지를 그리며, 참여자들과 함께 판을 짠다. 그러니 퍼레이드는 매년 새로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로 멈췄던 '탈핵퍼레이드'가 2024년 3월 16일 월성과 경주에서 근사하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 9월 7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기후행진을 마치고 '2024 연극 전태일' 제주공연 준비를 위해 제주로 날아온 장소의 대표를 9월 8일 6시, 제주시 조천읍 제주범씨학교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열린 탈핵퍼레이드였죠. 서울이 아닌 경주라서 더 좋았어요. 2023년 겨울부터 경산, 영천, 영

주, 안동, 포항 등 한 사람씩, 한 지역씩 모았어요. 경상도는 해안을 따라 핵발전소가 무려 22기나 있잖아요. 2017~2019년 서울에서 했던 것처럼 마을 또는 모임 공동체별로 퍼레이드에 사용할 소품 만들기 워크샵도 하고 탈핵토크를 거쳐 3월 16일 퍼레이드로 연결하고 싶었어요. ‘핵폐기물통 만들기 워크샵’은 포항과 영주 등 몇 지역과 마을공동체에서 진행했는데 탈핵토크는 결국 못했네요. 저는 탈핵퍼레이드가 장애인단체라든지, 공동체 마을, 경주제로웨이스트샵, 녹색평론 울진독자모임, 방정환배움공동체 구름달 같은 다양한 모임과 시민사회, 정당, 종교 등이 어우러지는 ‘울트라 공동체’로 나아가기 바래요.

천년고도 경주와 핵발전소의 관계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존재하는 월성핵발전소 6기는 경주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는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황리단길에서 27km만 가면 문무대왕릉을 거쳐 바닷가 마을 양남리 나아리이고, 나아리 끝에 자리한 시설이 경수로 핵발전소에 비해 5배의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월성핵발전소이다.

993년간 신라의 수도였고 석굴암, 불국사, 동궁과 월지 등 문화유산의 고장 경주와 월성핵발전소 단지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한 ‘3·11 후쿠시마 핵참사 13주기 대구경북 탈핵행진(아래 탈핵행진)’이 지난 3월 16일 경주 양남면 나아리 월성핵발전소와 경주 황리단길에서 열렸다.

경주에서 탈핵행진 하기 전에 ‘나아리’를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주까지 오는데 1~2시간은 걸려요. 탈핵행진에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루 일정으로 올 텐데 핵발전소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필요했죠. 핵발전소로 인해 각종 암과 백혈병 등 병마에 시달리고, 땅과 집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떠나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나아리 주민들과 연대하는 것이 탈핵행진의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00여 명의 탈핵행진단은 오전 11시 양남면 주상절리에 모여 월성핵발전소 앞 이주대책위 농성장까지 순례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주상절리를 출발해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3km 해파랑길을 걸으면 월성핵발전소 앞에서 ‘이주만이 살길이다’고 외치는 나아리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

10년째 자신의 직함이 적힌 상여와 관을 끌며 농성장을 지켜온 ‘월성원전인접지역주민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나아리 같은 작은 시골마을은 시민단체도 없고 주민편 들어 줄 정치인도 없다. 주민들은 늙거나 병들고 사라지니 오직 믿는 것은 국민뿐이라며 신규핵발전소도 막고, 낡은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막는 데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나아리 주민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 3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다는 경주 황리단길에서 ‘대구경북 탈핵퍼레이드’를 시작했어요. 경주활동가들은 황리단길에 200명 모이면 많이 모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201명으로 했죠. 그랬더니 300여 명 참여한 것 같아요.

나무담의 삼두매, 황새, 흰목물떼새, 열목어, 대지의 여신을 앞세우고 직접 만든 핵폐기물깡통을 짊어진 사람들이 뒤를 이었다. 핵오염수를 상징한 생선뼈와 하회탈까지 대열을 잇고 탈핵퍼레이드의 상징인 노란나비족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투타카 연주단과 풍물패 등이 어우러진 탈핵퍼레이드에 “너희들은 전기 안쓰냐”는 고리타분한 시비 따위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탈을 쓰고 걷는 이도, 장다리를 타고 날개짓 하는 황새들도, 핵폐기물통을 어깨에 맨 사람들도 황리단길을 찾은 경주시민과 관광객들도 흥겨운 퍼레이드의 주인공이었다.

후쿠시마와 세월호가 만든 연극 ‘물의 기억’

경북 청송에서 환경과 노동을 주제로 한 연극을 만들고 공연하던 장소의 대표가 핵발전소에 관심 두게 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도 지구온난화, 멸종위기종 등에 관심이 많았던 장소의 대표는 황금박쥐, 황새, 귀신고래, 사양노루, 흰사슴 등이 출연하는 환

경연극을 만들고 공연했다. 광우병을 주제로 한 연극을 올리면서 소 인형도 30개나 만들었다. 그때 만든 황새, 삼두매는 지금까지도 잘 나가는 인형들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핵발전소 문제가 어렵잖아요. 체르노빌,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해 알아가면서 2014년 초부터 핵발전소 관련된 연극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나온 연극이 ‘물의 기억’이에요. 후쿠시마핵발전소가 냉각수 문제로 폭발했고, 세월호는 바다에 침몰했잖아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물로 엮은 거지요.

나무담 연극 프로젝트는 시민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연극에 쓰일 소품을 만들고, 장다리를 신고 인형 연기와 춤을 연습한다. 지역공동체 구성원은 기획자가 되고 연기자도 되고, 소품과 무대를 만들기도 한다. ‘물의 기억’은 상주 백원초, 대구 도도 연극과교육연구소, 서울 성미산학교, 안동, 강릉 등 5개 지역공동체가 참여, 제작한 100인의 야외극이다. 각 지역에서 만들어낸 장면을 모아 하나의 연극으로 만들어 낸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드라마틱하다.

물의 기억은 후쿠시마 아이의 편지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2012년 후쿠시마 1주기 때 후쿠시마에서 피난 나온 11살 소녀가 “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장소의 대표는 후쿠시마 피난 소녀의 편지로 시작해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소녀의 편지 ‘제가 여러분이 죽이려는 아이입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대머리가 된 소녀 이야기들을 엮어 1인극 ‘대머리 소녀’를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다. 전쟁과 핵무기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안방까지 들어온 핵발전의 본질은 제국주의의 욕망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가장 힘없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다. 2021년 8월 청송에서 열린 국제환경연극제 폐막작으로 100인의 야외극 ‘물의 기억’을 다시 올린 장소의 대표는 공연 한 번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물의 기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변화에 주목한다.

연극을 마치고 돌아가면 어떤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연극을 준비하고 동안 핵발전소와 전기에 대해 몸으로 체감하게 되잖아요. ‘물의 기억’이 탈핵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탈핵으로 놀아볼 결심

장소의 대표는 2014년 ‘물의 기억’ 공연 이후 핵발전소 인근지역이나 탈핵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경주, 울진, 영덕 등에서 탈핵퍼레이드를 진행했다.

한울핵발전소가 있는 울진에서 탈핵퍼레이드를 하는데 사람들이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지금도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놀람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퍼레이드를 보던 눈빛이 기억나요. 울진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들이잖아요. 게다가 멸종위기종의 모습을 한 대형 인형들이 뛰어다니니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80여 개의 시민단체와 종교, 정당 등으로 구성된 ‘핵없는세상을 위한 탈핵공동행동’은 2012년부터 3월이면 시청, 신촌, 마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후쿠시마 기념행사를 열었다. 장소의 대표가 ‘물의 기억’의 영감을 받았던 후쿠시마 소녀의 편지는 2012년 서울광장 앞에서 열렸던 후쿠시마 1주기 행사 때 초청받아 온 ‘아베 유리카’ 양의 이야기였다.

장소의 대표는 2016년 탈핵퍼레이드를 서울에서 해 보자는 몇몇 환경단체의 제안에 ‘10만 명을 모

을 때까지 최소 10년은 탈핵퍼레이드를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2017년 '3·11탈핵퍼레이드 추진단(아래 3·11추진단)'과 행사를 기획했다. '3·11추진단'은 각 단체, 모임, 마을별로 '핵폐기물통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장다리 인형극을 펼칠 사람들과 거리극을 준비했다. 준비 과정 자체가 탈핵퍼레이드였고, 만들어 둔 소품은 다음 해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3월 11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를 탈핵주간으로 삼았어요. 탈핵이 생활문화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경주, 울산, 울진, 영광, 대전에서 지역주민들과 '핵폐기물통' 등 각종 소품을 만드는 워크숍과 탈핵토크를 하고 3월 11일에 맞춰 서울로 진군해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과 탈핵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다음 해부터는 부산, 경주, 울산, 울진, 영광, 대전 등 지역으로 차례로 물려가서 '핵발전소 폐쇄하라'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었죠. 그런데 지역을 조직하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2018년 후쿠시마 7주기 '핵쓰레기 너머 나비날다'는 일명 '핵강통 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3·11추진단'은 핵발전소와 핵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과 만든 10cm도 안 되는 노란핵강통에 주민이 쓴 편지를 담아 청와대와 각 지자체 등에 보내는 공익목적의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모든 진행 과정과 행사 취지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공유했고 영광, 대전 탈핵단체가 '소형 핵강통'을 공공기관에 발송했다. 몇몇 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 당시 "협박 의도로 보이지 않으니, 민원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후 태도를 바꾼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원불교환경연대 2명, 대전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 활동가 1명 등 3명을 기소했다. '3·11추진단'과 해당 단체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핵폐기물 택배'는 공론과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기획이었어요. '모형 핵강통'으로 그런 사달이 날 거라고 생각 못 했죠. 소형 '핵강통'에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실제 존재하는 수백 톤의 핵폐기물에는 왜 겁을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3·11추진단'이 결의하고 진행한 일인데, 3명의 활동가가 유죄판결을 받아 총감동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2019년 8주년 후쿠시마 행사 '가로질러 탈핵'은 국회에서 시작해 광화문까지 8.1km를 걷는 장거리 탈핵퍼레이드로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은 결국 정치가 풀어야 할 우리사회의 중요한 정책임을 알리고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핵발전소 문제는 정리될 수도, 정리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핵발전소가 다 문을 닫는다고 해도 이미 쌓여있는 핵폐기물은 어쩔 거예요? 탈핵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거죠.

장소의 대표는 탈핵퍼레이드를 하면서 3,000명까지 숫자를 세어 놓았다고 한다. '퍼레이드에 10만 명이 모이면 탈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장소의 대표는 내년 탈핵퍼레이드를 경주에서 터 크게 해 볼 생각이다.

황리단길은 500명만 모여도 꼭 찬다고 해요. 3,000명이 모이면 경주가 탈핵으로 메아리칠 거예요. 영광에서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수명연장 취소'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탈핵 퍼레이드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

장소의 대표는 연극은 라이브여서 힘이 있다고 한다. 대안과 저항을 모색하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모이고 쌓여 저마다 탈핵을 뿜내는 퍼레이드를 만들어 보자고 한다. 인디언 기우제처럼 그저 기다

릴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연결하다 보면 ‘10만 탈핵대오’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무심한 표정으로 말한다.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과 확신에 찬 그의 말에 ‘10만 탈핵 대오’가 눈에 아른댄다.

발견과 변형

장소의 대표가 탈핵퍼레이드를 기획할 때 신경전을 벌였던 것이 무대와 음향이었다고 한다. 무대를 세우고 중간, 중간 차량을 배치해 대오를 이끌고 선동을 하는 것에 돈과 공력을 들이는 것이 못마땅했다. 이미 행진대열에 나선 사람들은 탈핵이나 기후위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우리끼리 주거나, 받거나 하기 위해 마이크와 차량과 무대를 만들어야 하냐는 것이다.

환경연극은 공연무대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발견한 환경을 활용하거나 변형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문화가 그렇거든요. 풍물이나 마당극을 떠올려 보세요. 무대를 설치하거나 음향을 거창하게 하지 않잖아요. 무대 위와 아래가 나뉘면 주도자와 참여자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선두가 행진을 지휘하고 대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휘에 따라 걷는 일방적 행사는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무닭움직임연구소와 영국의 ‘핸드메이드 퍼레이드극단’이 합작으로 제작·공연한 ‘2017 청송 도깨비 사과축제’ 사전행사인 ‘사과아씨의 여행’의 한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한 해 동안 고생한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개최한 마을 축제 ‘사과아씨의 여행’은 10월 말 일주일 동안 청송군 8개·면 소재지를 순회했다. 주민들은 한국, 영국 예술가들과 마을별 사전워크숍을 통해 새, 별, 거북이, 소, 돼지 등 다양한 ‘등(랜턴)인형’을 만들었다. 읍·면별로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은 ‘등(랜턴)인형’을 머리에 쓰고 불을 밝혔다. 한해 농사를 갈무리한 농촌 마을의 까만 밤이 온통 생명들로 반짝였다. ‘등(랜턴)인형’에 몸을 맡긴 주민들은 아픈 것도 잊고 풍물패가 이끄는 대로 한바탕 축제를 즐겼다. 아직도 반짝였던 청송의 어느 밤 마을풍경이 몽클함으로 남아있다.

그해 20만 명이 청송 도깨비 사과축제를 보러왔다고 해요. 2016년 제주 칠머리당영등굿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제주도 영등할망 설화를 마을 축제로 만들었죠. 심사위원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라고 평가하더라고요.

나무닭이 2009년부터 시작한 국제환경연극 프로젝트와 공동체와 함께하는 환경연극은 예술가 집단만이 아닌 지역주민, 청년, 문화 활동가들을 끌어들이 하나로 묶어 협업하게 한다. 예술가와 주민 또는 일반인들과의 간격을 줄이고 연극으로 끌어들이는다. 장소의 대표와 나무닭은 ‘우리모두가 예술가이다’라고 부추긴다. ‘탈핵퍼레이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예술프로젝트 탈핵퍼레이드

대학시절 독문학을 전공하고 독일희극을 공부하며 무대극에 미쳐 살던 장소의 대표는 국내외 연극관을 돌고 돌아 2008년 연고 하나 없는 경북 청송 폐교 하나를 빌려 공공성과 예술, 공동체와 연극이라는 주제를 걸고 ‘나무닭움직임연구소’를 열었다.

‘나무닭 누리집’에는 나무닭 움직임 연구소는 몸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소리의 움직임, 사회의 움직임과 탈, 꼭두, 그림자, 신화 등에 깃들여있는 제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의연극, ritual theatre’을 창작하고 공연한다고 설명한다. 연구는 개발되고 학습된 각종 워크숍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실험으로 성과를 민중에게 되돌리는 의미라고 한다.

탈핵은 문명의 전환과 연관된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와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 의제로는 해결 될 수 없는 일이죠. 탈핵은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일이니, 공유지를 넓혀야 해요. 탈핵퍼레이드를 하면서 깃발을 들지 말자고 했어요. 되도록 글씨도 쓰지 말자고 했어요. 등에 짊어진 핵폐기물통을 보고 “뭘지?”, 날개를 펼치는 나비의 날개짓을 보고 “왜?”라는 질문을 떠올리는 열린 상상력이 발휘되는 공간이 되길 바랐던 거예요.

‘공공퍼레이드와 소품제작은 공동체예술’이라는 장소익 대표는 3월 11일을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탈핵퍼레이드를 준비한다. 참가자와 공동체를 모으고 탈핵문화학교를 열어 소품제작 워크숍과 탈핵강좌를 진행한다. 탈핵퍼레이드는 결과물을 공유하고 연결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장이다.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마을설화를 엮어 최고의 지역축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탈핵퍼레이드도 최고의 공공예술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소익의 ‘10만 탈핵대오 양병설’이 현실이 되는 그날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듯하다.

7) 가볍게 떠난 여행에서 연대를 배우다

2019년 박사논문 주제를 고민하고 있던 나는 원폭 피해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 나가사키에 갔다. 해마다 8월 원폭 투하 추모주간을 맞아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번갈아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주제가 바뀌면서 이 문제는 내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2019년 나가사키에 함께 갔던 전경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대표에게 올해 8월 다시 연락이 왔다. “나가사키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연대감을 느꼈어요. 올해 히로시마에 다시 갑니다.”라는 메시지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가사키와 피폭자들을 잊고 살던 나는 연구를 위해 그들의 삶과 피해 그리고 현장을 그저 ‘연구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은 아닌지, 그들을 대상화한 것은 아닌지 부끄러웠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모두 방문한 그가 궁금했다. 연거푸 인터뷰 제의를 거절했지만, 그에게 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10월 18일 2시간가량 그의 고민과 활동들을 묻고 들었다.

가볍게 떠난 여행, 나가사키

그에게 2019년에 나가사키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건약’과 ‘민의련’이라는 나에게서 낯선 두 단체를 말하였다. 그가 속한 건약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일부 약사들이 모여 단체를 결성하였고 1990년에 전국 단일조직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창립되었다. 민의련이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로 1953년 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민의련은 매년 8월 한국의 보건의료단체연합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초대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경림도 처음 2019년에 나가사키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가사키는 큰 고민 없이 회원들과 여행을 가려는 취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데. 민의련이라는 단체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동안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나 건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는 꽤 많이 갔는데 건약에서는 주로 상근자 선생님이 다녀왔고요. 건약은 초기 선배들이 반핵 활동을 했었고, 저도 핵의 위험성에 대해 조금씩 고민은 했어요. 근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의 소식을 전해 듣거나 후원으로 연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죠.

전경림은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동료들의 활동을 전해 듣거나 후원으로 연대하는 ‘간극’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던 여행에서 그의 가슴 속에 돌덩어리 하나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가사키에서 피폭자의 증언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피폭을 당한 이후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몸, 상처에 있던 구더기를 떼는 것이다’였어요.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정부가 일본 국민조차 보호하지 못했던 현실이 끔찍했죠. 폭심지에서 숙연한 마음은 있었지

만, 한국인 위령비를 보면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도 꽤 많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도 배제당하고 한국 정부로부터도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세워진거죠.

무엇보다 그가 감동하였던 것은 민의련 선생님들의 진정 어린 사과와 연대에 대한 진심이였다. “한국침탈은 일본 정부의 사과가 있었어야 했지만, 사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대신 사과한다,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분들은 역사의식을 갖고 저희에게 울먹이면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민의련 선생님들이 얼마나 한국에 있는 보건·의료인들과의 연대에 진심이였는지, 그 여운이 참 오래갔었어요.”라고 회상했다.

현장 알아보기

2019년 우연히 나가사키를 다녀온 이후 그의 삶도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 “사회문제에 약간 관심이 있는 약사로 살아왔는데, 현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족하지만 좋은 활동가 혹은 운동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 5월 그가 속한 대경전단협(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에서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합천’에 다녀왔다. 대경전단협이란 2010년에 대구경북지역의 인의협, 건약, 건치, 민변, 민교협과 대사연 6개 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인데, 보수화되는 대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서 피폭당한 한국인들은 총 10만 명이었는데, 그중 합천 사람은 70-80%를 차지하는 7-8만여 명에 달했다.

저희에게 말씀해주신 관장님은 일본에서 피폭당한 1세대로, 폭심지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아 한국 정부로부터는 보상을 받지 못했고, 당시 일본 정부에서 준 피폭 수첩이 있어서 그걸로 약간의 지원을 받아왔대요. 그런데 문제는 약간의 지원마저 1세대만 지원되고 그 후손인 2·3세대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3세대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폭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더 큰 낙인이나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이중·삼중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본인이 피폭당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대요. 물론 피폭당해서 눈에 보이는 장애나 육체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식에게 유전될까 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유전으로 발현되지 않았어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순간 후손들의 결혼이나 취업 등에 방해될까 봐, 그들이 자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봐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한국에서 ‘피해자나 피폭자’라고 말하지 못했대요. 평생 죄책감이나 짐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오히려 숨겨야 하는 상황이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했대요. 최소한 피해자임을 드러내야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텐데, 싸울 수도,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거죠.

나가사키, 합천 그리고 청도 삼평리

전경림은 2024년 8월 히로시마에 가기 전인 6월 11일 밀양에 연대하러 갔다. 밀양 행정대집행 10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대구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청도 삼평리를 들렀다가 다시 밀양에 모였는데, 그때 전경림은 깜짝 놀랐다. 삼평리에서도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있었는데, 전경림은 그곳을 ‘대구에서도 먼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청도 삼평리가 저는 엄청 먼 지역인 줄 알았는데, 헬티재를 넘으니 바로 삼평리였어요. 저는 헬티재 넘어서 자주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청도 삼평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자주 다니던 ‘드라이브길’ 거기가 삼평리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싸우는 삼평리 할머니들이 ‘의지가 굳은 투쟁가’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런 의지를 지켜올 수 있을까를 생각했죠. 그 할머니는 송전탑 공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동체 바깥으로 배제되

있대요, 왕따가 된 거죠. 코로나 때 마스크를 받으러 시내에 가거나 모내기할 때 물을 대주고 시내에 농약이나 벌씨를 받으러 갈 때 할머니들이 나가기 힘들니까 보통은 이장님이나 젊은 분들이 대신 받으러 가거나 차에 태워주는데. 이분들은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왔던 할머니가 낙락장송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매일 힘들고 고민하는 너무 평범한 할머니더라고요. 저라면, 저는 싸움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다시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날 전경림은 투사가 아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던 주민으로서 한 할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배제되는 순간의 서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본인에게는 아름답고 한적한 드라이브 길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몇십 년을 싸우고 버텨야만 하는 투쟁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5년 후 다시 히로시마로

5년 전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나가사키와 올해 다녀온 히로시마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했다. 또한, 왜 그는 다시 히로시마에 다녀왔을까?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하다가 8월 히로시마에 갈 때 저희 회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갔거든요. 제가 느꼈던 일본의 보건의료 선생님들과의 연대감이나 피폭의 문제점 등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사전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죠. 인하대 최규진 선생님이 민의련을 소개해주었고. <방사선피폭의 역사>와 후쿠시마 원전 노동자를 다룬 <최전선의 사람들>, 오에 겐자부로의 <히로시마 노트>를 함께 읽었어요. 이번에는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 조금 더 이해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준비를 해 간만큼 히로시마는 5년 전의 나가사키와는 달랐는데, 특히 피폭자들의 증언만큼이나 그들을 치료했던 민의련 소속 후지와라 선생의 강의가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피폭된 고아로 살아온 분의 증언을 들었어요. 부모님이 사망하고 언니와 본인이 살아남아 지금은 피폭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도 참 좋았어요. 선배로부터 환자를 볼 때 피폭된 후 일본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조폭이 되거나 강도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묻고 비판하기보다는 이분들의 배경이나 피폭 이후의 삶을 한 번 더 고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참 감동을 주었어요.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피폭자들이 평생 어떤 배제와 차별, 낙인을 받아왔는지를 고민하고, 왜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고민하면 현재 피폭자의 아픔과 상처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전경림은 한사코 본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겸허하게 말했다. 나가사키, 합천, 밀양, 삼평리 그리고 후쿠시마 등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목격한다는 것 역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러한 현장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고민하고 있을까?

예전에는 쉽게 판단했던 문제를 이제는 쉽게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히로시마에서는 나가사키에서 너무 쉽게 던졌던 질문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왜 피폭자들은 반핵운동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어쩌면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피폭된 몸으로 오랜 시간 싸워 피해자나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투쟁도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왜 넌 당사자인데 안 싸워?”라고 묻는 것은 타당한 질문인가. 처음에는 싸우지 않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제삼자인 우리가, 내가 그분들에게 던지기엔 너무 폭력적인 질문이 아닌가. 우린 그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등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활동가나 운동가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도 이분들을 그저 짧은 시간 관찰한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저는 ‘탈핵 있다’ 인터뷰를 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5년 전 나가사키를 갔을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렸고, 내년에도 다시 나가사키에 꼭 가려고요. 제가 대표로 있을 때 최대한 많은 회원과 가서 이야기도 듣고 또 민의련 선생님들과 어떻게 우리가 연대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보려

고요. 두 번째로 가는 나가사키이니 느낌이 다르겠죠. 제가 받았던 고민이나 감동을 다른 회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현장과 사람들을 잇는 연결고리, 씨앗 그리고 연대

전경림은 내 주위의 동료들과 함께 유쾌하지는 않지만,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현장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장과 사람을 ‘연결’하고 ‘잇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과 사람을 다시 잇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무엇인가를 느끼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현장에서의 증언을 통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고민을 거친 전경림은 사람과 현장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저는 현장과 사람들에게 연대하려고 해요. 그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고립되어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힘이 될 수도 있고, 그 연대가 또 다른 씨앗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연대라는 단어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 혹은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전경림은 자신이 우연히 방문했던 나가사키 이후 여러 현장을 보고 들으면서 더 많은 사람과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그렇게 전경림의 연대는 더 많은 ‘전경림들’로 이어지고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고민과 크고 작은 활동들이 더 많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그가 2024년 원수 폭금지세계대회 민의련 참가자 교류회에서 한국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했던 말 중 일부를 공유하며 글을 마친다.

핵무기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핵발전. 어디에도 ‘평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난과 위험, 자본과 국가와 권력의 공고한 결합이 빚어내는 폭력은 국경을 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할 뿐 아니라 하청노동자, 농어촌 주민, 사회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핵발전은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국경과 국적을 넘어 핵발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평화 공존의 반핵연대를 이어갑시다. 히로시마에서 민의련과의 교류, 한일연대를 잊지 않고, 일상의 힘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탈핵있다’ 인터뷰를 위해 10월 16일 용산의 한 카페에서 만난 공혜원 씨는 탈핵과 탈성장, 탈핵과 재생산에 대해 공부하며 깨달은 ‘공혜원의 행복론’을 펼친다. 탈성장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어렵지 않냐는 말에 공혜원 씨는 “탈성장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구체성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역설로 답한다. 누구든 탈성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수 있으니 가능성이 풍부한 운동이라는 것이다.

저는 탈성장 사회를 ‘재미있고 행복한 것을 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재미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요리와 먹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맛있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해요. 제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타인의 노동과 기후, 땅의 조건이 필요하죠. 세계 탈성장론은 제철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밀양 송전탑 투쟁 현장과 밀양과 탈송전탑 연관어에 불쑥불쑥 얼굴 내밀던 공혜원 씨는 대안학교 프로그램으로 밀양을 만날 때 만해도 밀양 탈송전탑 운동이 ‘지역 님비’라고 생각해 내키지 않았단다. 고2 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밀양대책위)’ 김영자 총무와 밀양 할매, 할배들을 만나며 탈송전탑 운동에 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밀양’은 공혜원 씨가 기후정의와 탈성장 운동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었다.

“밀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딱히 답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밀양은 그냥 제 삶인 것 같아요. 제가 밀양의 연대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지막지한 국가 폭력에 힘입어 10년 전 송전탑이 세워졌을 때 제 또래 친구들이랑 “송전탑 뽑아서 옛 바퀴 떡자고, 그런데 옛을 얼마나 많이 바꿔줄까?” 하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어요. 그런데 농담이 진담이 되더라고요. 가끔 지치고 자주 힘들겠지만, 송전탑 뽑을 때까지 탈송전탑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요.

탈핵하는 요즘 청년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면서 핵발전 진흥정책을 밀어붙였다.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을 하지 않고 노후핵발전소는 설계수명이 다하면 폐쇄하겠다’라던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탈핵 정책마저 비판하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소형핵발전소 (SMR)까지 기후위기 대안으로 핵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아래 10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핵발전 감소’라는 기본 틀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운동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겠다던 공혜원 씨는 밀양에서 만난 청년들과 2022년 ‘탈핵·탈송전탑세미나(아래 탈탈세미나)’ 모임을 만들고 10월 28일 10차 전기본 공청회 저지투쟁을 기획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진행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탈핵운동이 약화된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탈탈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취임까지 에너지문제에 대해 공부했어요. 모임 이름에 세미나를 붙인 것은 탈핵·탈송전탑 관련 공부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핵발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대폭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줄이면서 핵발전 위주로 에너지정책을 재편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해야겠지만 ‘10차 전기본’ 대응이 급했죠.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아는 인맥을 동원해 연락해보았지만,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2022년 10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진행되는 내내 핵발전 비중이 높아진 것에 항의하는 탈핵·환경단체 활동가들과 ‘탈핵·탈송전탑·기후정의’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손피켓을 든 채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공혜원 씨는 오히려 무력감에 빠졌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주는 교훈을 탈핵운동 뿐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보성향 정권에 대해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치열하게 이뤄져야 해요.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죠.

공혜원 씨는 ‘10차 전기본’ 대응 이후 일본으로 날아가 ‘코로나19’이후 4년여 동안 중단됐던 ‘반핵 아시아포럼’ 한국개최 제안을 덜컥 받아온다.

행사 유치를 당한 거죠(웃음). 반핵아시아포럼은 한국, 일본, 대만이 중심축이었는데 웬만한 나라는 한 바퀴씩 다 돌았고 한국 차례였지만, 국제행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인 탈핵운동가 친구 사토 씨를 만나러 가서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를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웃음)

2023년 1월 공혜원 씨가 일본을 다녀온 뒤 8개월 만인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부산-울산-경주-삼척’ 등에서 반핵아시아포럼이 열렸다. 탈탈세미나와 녹색연합, YWCA에서 활동하는 청년 5명, 탈핵활동가 2명 등 7명이 아시아 9개국, 5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연대 사업을 치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일본과 대만 탈핵운동의 역사와 교훈은 저한테 매우 중요했어요. 저는 폐기물, 제가동, 핵오염수 등 사후 대응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사고 이후 탈핵운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었고, 대만은 국가차원의 탈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돌아오면 핵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공약들이 난무하는 것을 봐야 했어요. 끝나도 끝났다고 손 털 수 없는 운동이에요. 저와 같은 청년들이 핵발전, 송전탑과 살아가야 할 날들이 더 많으니, 청년들의 탈핵 국제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저의 관심은 온통 ‘청년세션’이었어요.

반핵아시아포럼 마지막 날,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던 ‘청년활동가 집담회’에 모인 20여 명의 탈핵하는 아시아 청년들은 각국의 탈핵운동을 소개하고 고민을 나눴다. 한국 5명, 일본 3명, 대만 3명이 발표에 나섰고 20여 명이 참여해 향후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반핵아시아포럼 실무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청년네트워크를 만들어 낸 점은 뿌듯해요. 탈핵을 선언한 대만은 좀 나은 편이지만, 일본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조건이에요. 반핵아시아포럼에서 만난 청년들끼리 서로 토닥거리는 것부터 하려고 해요. 나라별로 사안이 생기면 ‘공동성명서’ 내는 것도 큰 힘이 될 거예요.

2025년 반핵아시아포럼은 5월, 마지막 핵발전소 폐쇄를 앞둔 대만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국가로는 처음 탈핵을 이뤄내는 대만에서 아시아 청년들이 만나 희망 섞인 탈핵·탈송전탑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한 발짝 떨어지니 보이는 것들

큰 환경단체에서의 일이 궁극했던 공혜원 씨는 고3 때 인턴십으로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에서 일했다. 밀양에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국가폭력과 맞서야 하는 날 선 생활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면 화려한 불빛, 따스한 방에서 죄의식 없이 편히 소비하는 전기들을 마주하며 공혜원 씨는 밀양 탈송전탑 문제와 부정직한 에너지 체계를 서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학 졸업 후 인권단체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일하면서 탈핵 세션을 만들고 탈핵과 인권관련 영화를 상영했다. 그 후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을 거치며 탈핵과 에너지에 대해 공부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계약직 공무원 생활도 3년이나 했다. 밀양은 그렇게 공혜원 씨 삶에 스며들었고 에너지 관련 이력들이 쌓였다. 그러나 탈핵과 에너지운동은 하면 할수록, 과면 팔수록 어려웠다. 한 발짝 떨어져 있겠다고 마음먹었다. 공혜원 씨에게 탈핵운동의 무엇이 어려웠고, 에너지운동에서 한 발 떨어지니 어떤 것들이 보였는지 물었다.

에너지문제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활동가라고 전공자나 전문가처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연차가 쌓이다 보니 설명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알아야 했고, 내용에 접근하려니 어려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어려움은 탈핵운동이 지역주민들 이야기나 도시에 사는 전기소비자들의 이야기로 치환되기 어렵고 지역과 도시, 주민과 연대자로 자꾸 이분화되더라고요. 저는 핵발전구조와 기계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탈핵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에너지 전문가인 이현석, 김현우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하면 돼요. (웃음) 핵발전소를 겪어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야 하고 개인과 지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피해로 확산시키는 것이 탈핵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고 삼중수소 등 인공방사능 물질이 소변에서 섞여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도 인과관계를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하라는 식의 핵산업계의 프레임에 너무 오랫동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탈핵있다’ 같은 구슬작업은 중요한 운동방식이에요.

공혜원 씨는 서울은 중앙이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이라고 말한다. 에너지관련 시설이 없고

생산지의 경험이 없는 거대한 전기소비자들이 핵발전소 주변지역 사람들이 겪는 정신, 육체적 피해를 알기 어렵고 핵산업계가 주민들을 어떻게 길들이고 갈라치는지 세세히 알 수 없다. 핵발전이 위험하고 방사능에 대한 공포와 늘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을 인정하면 자신이 딛고 선 삶의 터전을 부정해야 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거대한 핵산업계에 길게 저항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1979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25기의 핵발전소를 생기고 운영되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거센 저항, 갈등과 분열, 이주대책 요구, 순응과 종속의 과정을 거치며 핵발전소 주변지역민으로 살아간다. 밀양이나 청도 송전탑 반대투쟁이 마을에 남긴 상처와 일상의 반목과 고립은 새벽별 보면서부터 새까만 밤이 내리도록 산꼭대기 움막을 지키던 때보다 삶을 더 힘들게 한다. 불안, 영덕, 삼척, 영광, 울진, 월성, 밀양, 청도, 봉화, 당진, 홍성 등 핵폐기장반대투쟁과 신규핵발전소 반대, 탈송전탑 투쟁에 나선 지역주민들 가슴속엔 불구덩이가 한 움큼씩 자리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살아서 그런지 할머니랑 친해요. 할머니랑 냉이 캐러 가는 것이 저희 '행복한 것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노인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 때문에 끔찍 앓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속상해요. 할머니가 '인싸'거든요. 노인정은 할머니 일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고 관계들이 모인 곳인데 외면할 수도 없고, 노인정에 나가자니 상대방 볼 생각에 속이 끊고 하는 거죠.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 갈등과 배신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만으로 예단할 수 없는 감정과 갈등들이 많을 거예요. 할머니는 몇 날 며칠 속 끓이다가 스~욱 하고 떡을 내밀며 관계를 정리해요. 마을에서 개인 사이의 다툼도 일상을 지배하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핵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탈핵운동이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았고 탈핵연대회의에 모인 동료들의 지친 모습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운동에서 한 발짝 떨어져 보기로 했어요.

한 발짝 떨어지니, 방황도 함께 오더라는 공혜원 씨는 회계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회계 관련 자격증을 따며 취업을 준비했다. 밀양대책위는 2019년 '밀양·청도송전탑투쟁'을 담은 아카이브제작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고 공혜원 씨는 밀양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밀양·청도 송전탑반대투쟁 온라인기록관'작업을 하면서 다시 제게 운동이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웃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크고 먼 것이 보여요. 지금쯤이면 밀양행정대집행 10년 준비 모임 꾸려야 하고 바로 나아리 이주대책위 상여투쟁 10년, 11차 전기본 투쟁이 꼭 이어져야 하는데 왜 움직임이 없지? 궁금해하고, 참견하다, 현장에 연락하고 기획팀 꾸리고 다시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거죠. 6월 8일 밀양행정대집행 총괄팀장도 참견하다 일을 맡아 버린 거예요.

송전탑을 감각하다

지난 2014년 6월 11일 765kV초고압 송전탑 저지를 위해 송전탑 예정지 이름을 딴 움막을 짓고 저항하던 밀양주민과 연대자들을 무자비한 공권력을 딛고 기어코 세워진 송전탑을 보며 밀양주민들은 '언 놚이 씨부려도(어느 누가 떠들어도) 탈핵 탈송전탑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다시 내걸고 팔도를 돌아다니며 핵발전과 송전탑의 위험을 알려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와 함께 '언 놚이 씨부려도'는 밀양 송전탑 투쟁을 상징하는 슬로건이 되었다. 2024년 6월 8일 10년 전 밀양주민과 함께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웠던 '밀양의 친구들' 1,500여 명이 '희망버스' 22대를 타고 다시 밀양에 모여들었다. 한 발짝 떨어져 참견이나 하겠다던 공혜원 씨는 밀양행정대집행 10년 행사의 총괄팀장을 맡았다.

'탈탈세미나'에서 올해 전망을 하면서 밀양·나아리 10년과 11차 전기본 대응을 흐름 있게 가져가 보자는 의견을 나누고, 올해 초부터 조직을 꾸렸어요. 밀양지역 시민사회는 밀양 현장이 갖는 상처와 갈등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선뜻 나서기 어려워했어요. 부산, 울산 시민사회 탈핵활동가들이 짙짙하게 현장을 받쳐

주고 청년들로 조직, 홍보 실무팀을 꾸렸어요. 기획팀, 조직팀, 홍보팀에 각각 10여 명씩 꾸려졌고 주 1회 점검했어요. 저는 총괄팀장이라 일주일에 4번 각 팀 회의 참여했어요. 전국에서 모인 활동가들인데 합이 잘 맞았고 일하는데도 신이 났어요.

공혜원 씨는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아래 셰어)’ 사무국장이다. 현직 업무량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40여 명의 활동가가 신나게 합을 맞춘 총괄팀장의 비결을 물었더니 “밀양이 좋아요”라고 답한다. 10년 세월 너머, 빗속을 달려온 1,500여 명도 같은 마음이었지 싶다.

송전탑을 ‘감각’하게 하고 싶었어요. 10년 전 밀양에 와 본 사람이나, 10년 후 밀양에 처음 온 사람이나 송전탑을 가까이 보는 것은 처음이니 송전탑을 감각으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했어요. 사전 행사로 밀양시 여수·고정·평밭·용회마을과 경북 청도군 삼평리 등 5개 마을로 나눠 참가자들이 송전탑 아래 서보는 경험을 했어요. 송전탑은 비 오는 날, 더 무섭거든요. 크게 울리는 웅웅 거리는 소리와 비행기 충돌을 막으려고 빨간빛을 내는 송전탑의 기괴함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거예요. 기괴한 풍경을 매일 봐야 하는 마을 주민들의 심정도 조금은 감각하지 않았을까요?

행사 당일 점검회의를 마친 오전 10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 5개 마을 송전탑 체험도, 오후 4시 밀양강 둔치공원에서 열린 결의대회 진행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10년 세월 동안 힘 빠진 무릎을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는 밀양 할매, 할배들의 안전이 걱정이었다. 22대의 희망버스가 출발한 곳으로 떠나자마자 퍼붓던 비가 거짓말처럼 멈췄다.

10년 행사가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힘든 주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지, 비까지 와서 행사장에 나와 계신 것이 힘든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으로 앞에서 사람들을 마주 보는데 밀양주민들과 참가자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행사에 의무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와 있다고 느꼈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웃고 있으니 미친 사람들 같기도 했어요.(웃음) 제가 무대 옆에 서 있으면 팀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하는 게 다 보여요. 그냥 그렇게 서서 사람들 웃는 것 보고 행사 내내 실무팀과 눈 맞추고 마음 나눴던 그 시간이 모두 좋았어요.

셰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공혜원 씨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이다. 셰어는 밀양과 연대하고 탈성장·재생산을 연결하며 N개의 기후정의 선언에도 참여했다. 셰어 홈페이지에는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누리며 충분한 정보와 평등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비전을 밝혀놓았다. 셰어와 탈핵 탈송전탑, 기후정의 운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했다.

셰어는 국내 최초로 성별, 연령, 장애, 인종, 국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통합 센터를 지향해요. 20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낙태죄 폐지운동’에 관심이 많아 2019년 10월 셰어 창립 때부터 회원가입하고 활동을 팔로우 하고 있었어요. 2022년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보고 자신은 없었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

공혜원 씨는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고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 활동가들로 구성된 ‘셰어’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루기 위해 노력한다. 공혜원 씨가 관심 갖고 팔로우했던 낙태합법화 투쟁은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비범죄화 되었으나, 대체입법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임신중지’는 권리이고 상담과 병원치료 등은 합법이지만, 국가 차원의 가이드가 없으니 아직도 건강을 해치는 불법시술이나 부당한 비용청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공혜원 씨는 셰어 단체명에 ‘재생

산'이 있으니 여성단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세어는 '성, SEX'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강조한다.

재생산운동이 좋은 것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이 재생산이라는 것은 협의적 의미예요. 재생산은 여성이나, 자궁이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별이나 성적 정체성, 성적취향에 차별과 낙인이 끼어들 틈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재생산 정의' 운동이에요. 탈핵 탈송전담, 에너지전환운동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이니 재생산 정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어도 결국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일이고, 기후정의운동이 부르짖는 '체제전환'이라는 공혜원 씨는 기후재난에도 배제와 소외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기후재난을 특정한 사건, 특별한 자연재해로 인식하면 '일상이 재난'인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민, 여성농민 이야기는 가시화되지만, 이주민은 배제되는 식이죠.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폭염과 농업노동, 가부장문화에 시달리는 이주민이 겪는 일상의 재난은 가려져요. 세어는 우리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는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성노동자, 성소수자, HIV 감염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불리는 소수자 집단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해요. 기후재난에서 마저도 소수자들이 배제되고 가려지면 '기후정의운동'이라고 할 수 없죠.

'기후와 성은 어떤 관계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공혜원 씨는 안전한 공간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권리가 작은 문제거나 배제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의 행복과 탈핵, 기후정의라는 사회적 담론이 같은 선상에 놓인 이야기라는 것이다. 냉이에서 시작해 탈성장애 이르고, 밀양에서 출발해 세어에 다다르듯 공혜원 씨의 다음 연결은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길고 넓어질 그의 행보에 박수와 응원을 잔뜩 보내야겠다.

3.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경로를 통해 '탈핵'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탈핵을 실천하는 여덟 명의 시민들이 어떤 계기로, 어떻게 탈핵시민이 되어 가는지 8인 8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평범한 이웃 누구나 탈핵시민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핵발전'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전기를 사용하는 단순 소비자일지라도 이웃의 희생을 담보로 한 핵발전의 부정의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탈핵의 정의나 개념이 주로 '운동'으로서의 탈핵, 혹은 핵발전을 중지하라는 구호로서의 탈핵에 간혀 있었던 제한된 접근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바다, 생명과 이웃의 삶으로서의 탈핵 이야기를 이어가는 'N개의 탈핵이야기'를 만드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로 8편의 글을 오디오 콘텐츠(오디오 북)로 만들어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